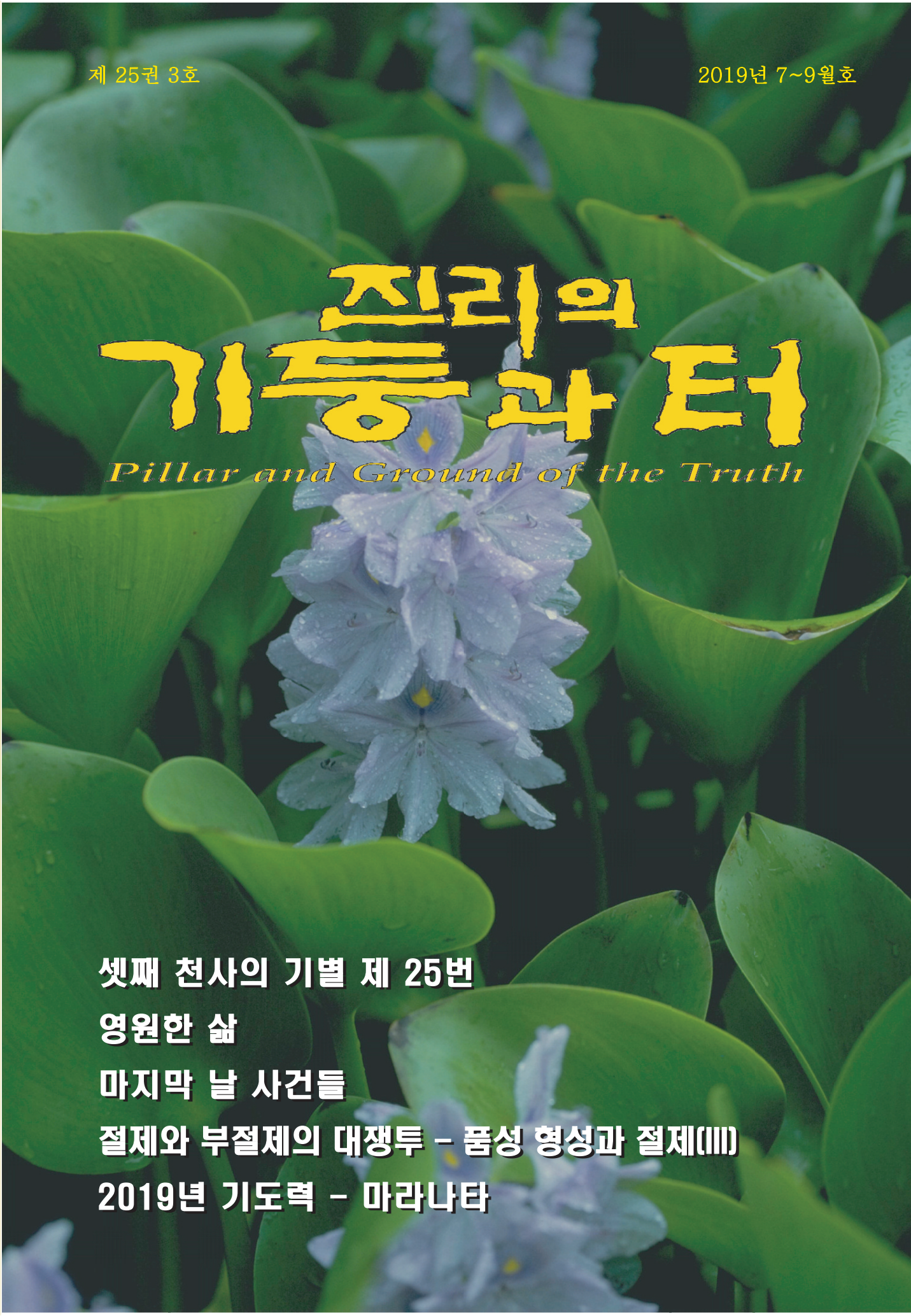
제 25권 3호 2019년 7~9월호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5번

영원한 삶

마지막 날 사건들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 품성 형성과 절제(III)

2019년 기도력 – 마라나타

요나의 경험에서의 교훈

현종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대하여 염려하고 당황한다. 그 대도시로 여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맡은 임무가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요나는 용기를 잃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잘 아는 요나는 그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을 때, 만일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선포한 위협적인 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또한 두려워하였다. 일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에게 큰 수치가 될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욘 4:1, 2).

그래서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었지만 후에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되었다. 니느웨의 주민들은 회개하고 얼마동안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켰다. 요나는 화를 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스러운 처사가 정당하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매우 큰 폭풍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으시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교도들로 가득 찬 도시에까지 미친 하나님의 관심과 그러한 백성에게 보이시는 크신 자비를 보여 준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과 같이 한낮에는 작렬하는 태양의 계절 여름이었나보다.

요나는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던 박 넝쿨의 마름을 불평했으며 니느웨 성 안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십 이만 명과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성을 충분히 볼 수 없었다.

"요나의 설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설교는 당신의 세대의 표징이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조적이었는가! 그러나 구주께서는 무관심과 조롱에도 불구하시고 계속 수고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셨다.

이 교훈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옛 니느웨 사람들처럼 참 하나님의 특성과 목적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리켜 주어야 한다." –선지자와 왕,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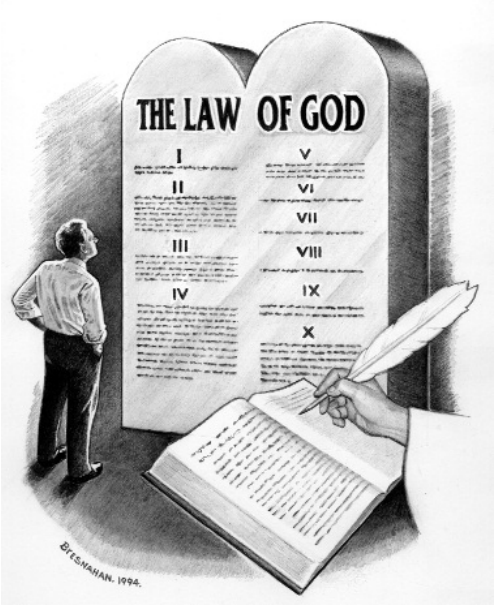
요나의 예언들이 가르쳐 주는 교훈들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며(딛 2:11),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행 11:18)다. 베드로처럼(행 10장)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을 마지못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회개하라는 요나의 외침에 응답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거만한 유대인들을 정죄하셨다(마 12:41; 눅 11:32).

그것은 또한 종교적으로 안일한 만족과 안전하다는 거짓된 관념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책이기도 하였다.

요나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를 원하시며, 저들이 회개할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우며 감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책을 열며 2

1895년 대총회 회보 4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5번_A.T.죤스

진리탐구 12
영원한 삶_원동규

시대의 징조 17
마지막 날 사건들_E.G.화잇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20
품성 형성과 절제(III)_김동춘

2019년 기도력 26
마라나타

◎ 2019년 7월~9월호(분기별 정기 간행물) | ◎ 통권 제25권 3호 제179호 | ◎ 2019년 5월 30일 인쇄 | ◎ 2019년 6월 15일 발행 | ◎ 편집인 출판위원회 | ◎ 인쇄인 서진인쇄사 | ◎ 발행처 의성사 |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한국합회 |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 | ◎ 전화 (054)435-1843 | ◎ 팩스 (054)434-4521 | ◎ (우체국) 700377-01-005190; (농협) 351-0513-4988-73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 정기 구독료-1년분 20,000원 ◎ www.sdarm.or.kr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5번

A.T.존스

오늘 저녁은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을 연구해 보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한 줄씩 띄어서 인쇄된 헬라어 성경은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보다 진정 더욱 강하게 말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위법이 되는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저 단순히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가 아니라 "교제하는 것이 진정 위법이 되는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 되었는가? 유대인으로써 다른 민족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법이었는가? 유대인들은 그것을 위법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것이 위법이었는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직 그것만이 법임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외에 어느 다른 누가 말한 것일지라도 아무 것도 법으로써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법으로써 정당하게 말해질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을 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것임을 배워야 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배워야 하였으나 그것을 배우는 대신에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배웠으며 그리고 사람이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욱 구속력이 있게 여겨진 것은 완전히 정 반대 되는 것이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효화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자신 가운데서 행하신 그의 사업들은 모든 관습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 분께서 그렇게 문제들을 바꾸심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말할지라도 법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법으로써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것을 위법으로 간주하도록 사람들을 이끄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만이 법이요, 그가 말씀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만이 위법이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 아니면, 더 많은 시간 – 에 걸쳐 연구하려고 하는 원칙이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원칙인데 이는 우리가 시대의 종말에 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백성들이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편견으로 세상을 묶게 되는 시기에 곧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그에게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매우 가깝게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법이요, 행동의 정의요, 우리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 나타났고, 그의 안에서 이루어졌다. 세상의 모양과 형식과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며 그것들과 결합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유전에 대해 행하신 것처럼 그

들을 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충실하였더라면 그들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라도 다른 민족과 교제하거나 그들 누구와 무엇을 할지라도 위법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길에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고 주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그들의 등을 돌려 버림으로 그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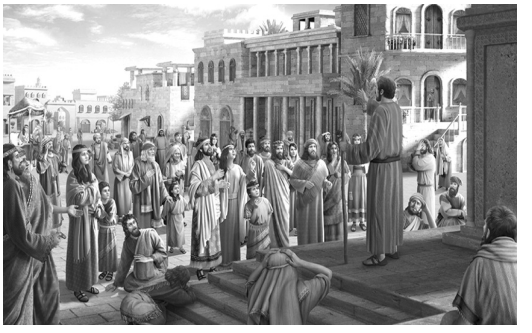
베드로가 말한 것 가운데 유대 민족 전체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주목해 보도록 하자.

그들의 생각에는 모든 국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께 설 아무런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요나의 때와 바벨론 왕국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전에 시리아 왕국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중 한 사람 요나를 부르셔서 그 이방 국가로 가서 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파멸과 다가올 멸망을 선포하고 만일 그들이 경고를 받아들이면 다가올 재난을 피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요나가 주님께 말하였다. "제가 그렇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비로운 하나님시이요, 죄를 회개케 하시고 만일 내가 거기에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전하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그들이 악함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주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한 저의 말이 어떤 유익이 있으며, 이 여행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주께서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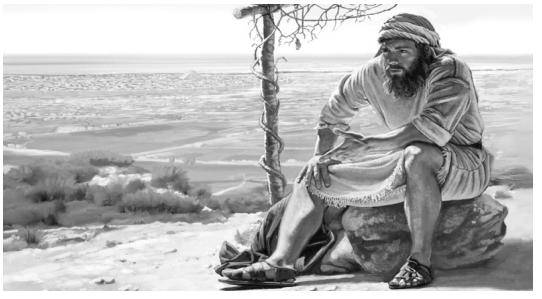
그러나 주께서는 그가 니느웨 성으로 가기를 요구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그의 주장을 계속 생각하며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였다. 주께서는 그를 되돌아 오게 하셨으며, 그 때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났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성안에 들어가 삼일 동안 여행하면서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다. 그 말은 니느웨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왕은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으며 짐승일지라도 금식하도록 하며 백성들이 힘써 여호와께 간구하도록 명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들의 회개를 가납하시고 성(城)을 구하셨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성을 멸망시키는가 보려고 성 앞 높은 곳에 나가 앉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다. 요나는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외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께 고하기를 이곳에 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며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하였더니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었으니, 차라리 집에 있는 것이 좋았을 뻔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 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욘 3:10; 4:1~4).

성경은 또한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성 동편에 앉아 거기에 초막을 짓고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 하였고 주께서는 박 넝쿨을 준비하셨으며, 후에 그것이 시들어 버렸고 요나가 그것을 인하여 성냈으며 그가 죽기를 간구하였음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가 결국 이 교훈을 배웠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더욱이 이것은 기록되었고 백성들의 손에 거룩한 책의 일 부분으로서 보존되었고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돌보시기를 원한다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배웠어야 했다.

요나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고 또 그렇게 안다고 말하였다. 그 사실을 알므로서 그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기별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더 준비가 되어야만 하였다. 이 책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로부터 그것에 정 반대 되게 나아갔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구주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였다.

그 후 그들이 이방인과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상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비뚤어진 행로를 걷고 매우 이기적으로 되었고 자신들의 문을 꼭 닫아 매우 악하게 되었고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로 그들을 치게 하셨으며 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인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비난 하였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방 왕의 상에서 먹었고 일년 내내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다니엘을 위대한 선지자중의 하나로 만드셨으며 풀무불로부터 세 친구들을 구원하셨다. 무엇 때문에 이 사실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야할 책으로 주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과는 정 반대됨을 단순히 가르켜 주기 위함이었다.

이보다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보도록 하자. 다니엘 4장을 보도록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게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기별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그의 기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손에 이 조서를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도록 하시고 다니엘에게 왕을 위해 꿈의 해석을 허락하시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

네살 왕을 인도하셔서 참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를 신뢰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선포하는 위치에 서게 하셨다. 다니엘 4장의 마지막 절들을 읽어보라.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고 쫓겨났으며 주께서 다시 주의 선하신 때에 그를 다시 되돌아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들 앞에 계속적으로 한 교훈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교훈으로 그들의 이 모든 생각이 진리와는 정 반대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시기에 준비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셨다.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행하였다면 이방의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국가에 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마음 문을 닫고,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문을 닫아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모든 국가에 알리도록 하셨다.

또, 6장을 보도록 하자. 거기에 다리오의 예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핍박 받음과 그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다. 25절에 기록된 다리왕의 조서를 읽어 보도록 하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요 완전히 내쫓김을 받았으며 거부당한 한 사람의 말에 의하여 모든 백성들과 국가들과 방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말로 기록되어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가리키고 행하고 있는 것이 상반됨을 그들에게 계속하여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에스라 첫째장에 기록된 한 실례을 더 보도록 하자.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과 관련하여 읽어보도록 하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

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스 1:1~3)

이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등을 돌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때 그가 그들의 상태를 발견하신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모세의 책들 가운데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그들은 다른 모든 국가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분리가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장 14~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나와 주의 백성을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어떻게 함으로 구별된다 했는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렇게 그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할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더면 그들은 진정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애에서 모든 백성들과 분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땅위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과 교제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모든 백성과 국가와 방언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선하심과 능력을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고레스가 한 것처럼 전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치아니하고 그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으로부터 떠나 주님께 구별된다는 것은 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였다면 그들은 이 땅 어느 곳에도 갈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이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오직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주의 임재를 소유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에게 구별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그들 자신이 분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뜻을 자신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해석하므로 그들 자신을 구별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 9)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이 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그들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분리를 자신들 위에 부과하였고 그들이 구별되려 하였더면 그들 자신들 위에 부과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을 분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분리하려고 시도함으로 어떤 것을 초래했는가?

그것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생각해 보라.

그것은 자신의 교만함과, 거만함, 교만한 사람을 부추기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과신, 자만, 자찬, 독선등 이기심의 모든 종류들이 그것들 위에 더하여 짐으로 더욱 증가하고 그들 자신의 모든 무익한 노력으로 주님께서 그들이 모든 국가들로부터 구별되리라 하신 성경 말씀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취하여 내셔서 모든 나라들로 흩으실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을 때, 그들이 그들의 땅에 있었던 때보다 그들과 더욱 분리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졌을때, 그들의 땅에서 찾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을 찾았고, 그들의 땅에 있을때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거기에서 그들이 감사치 아니하였던 주님을 찾았으며,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분리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방법으로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오직 그들이 구별될 수 있는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그들은 잘못된 길을 택하였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과 그들의 의식과 예배들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자신을 추구하는 이 노선은 주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형식을 곡해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것은 이 종교 의식들이 구원의 수단으로 믿도록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이 이 의식들을 준행하였을 때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했을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그들에게 제정하신 종교 의식들을 곡해 하였고 자기의 의와 자만 그리고 자기 독점주의의 의식으로 모두 바꾸어 버렸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그분의 임재를 소유하였더라면 이 모든 제정된 의식들은 그들에게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였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의 모든 면이 거룩한 생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의 살아계신 임재와 개심시키는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은 제정된 모든 의식과 그들앞에 제시된 이 모든 상징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 후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의식들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현재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므로 변화된 마음에 의한 생애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결핍은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들이 높아지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신성한 의식들을 단순히 형식과 외형적 의식으로 전락시키고 그것으로 생명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구원의 방편으로 그리스도의 위치에 이 의식과 형식들을 대신하게 하였다.

지금,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의식들을 무엇으로 여겼는지에 관해 몇 구절을 읽어볼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대들이 이것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보기를 간구한다. 나는 여기에 E.G.화잇 여사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생애" 의 원고 몇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연구한 주제에 대해 많은 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기에서 읽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회보에 그 말씀들이 기록됨으로 우리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모든 목사들과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가치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으며 오늘 저녁에 그 말씀에 대한 특별한 설명없이 지금 읽고자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결과로 다음 과제가 따르게 되며 이 모든 점들은 우리의 다음 연구에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 출판되지 않고 아직 원고 상태에 있으므로 페이지를 말해줄 수 없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 외에는 어떤 다른 무리와도 교제하는 것을 피하였다. 저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저희 백성의 무리를 멀리하여 저희에게 유익을 주지도 아니하고 저희의 우

정을 얻고자 힘쓰지도 아니하였다. 저들의 가르침은 모든 부류의 유대인들을 세상의 모든 무리들로부터 분리하므로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부하며 편협하도록 이끌었다.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격리와 엄격한 신앙은 그들의 영향력을 위축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시어 그의 사명의 감화가 모든 자 위에 미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신 편협을 조장시켰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존재하였던 배타심을 폐하시는 사업을 시작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일반 백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이 혼인 예식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목적이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가르치신 가르침에서 너무 멀어져 그들이 모세에 의해 주어진 율법의 의문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의 언약의 성취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로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따르는데 동반된 열성은 그들에게 큰 충성의 분위기를 부여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시하신 의식을 행하는 것에 만족함이 없이 그들은 계속적으로 엄격하고 무거운 의무들을 행하는 것으로 향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위선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차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의식의 많음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측량하였다. 그들이 이 땅에 유일하게 의로운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동안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모세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성화되지 못하고 혼돈된 해석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유전에 유전을 더하였으며 무의미한 의례와 의식의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법과 의식이 잃어버림을 받을 때 그들은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저들의 종교는 종의 멍에였다. 그들은 그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 저들은 항상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나머지 저들의 마음은 위축되었고 저들의 생활의 범위는 협소해졌다."

질문이 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항상 자아, 자아, 이기심이었다.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접촉하사 동정하심으로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는 유대인이셨으며, 내면으로도 유대인이되는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모본을 남기시도록 계획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큰 경의를 표하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시는 한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시고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저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힘쓰셨다.

예수께서는 부절제와 방종을 책망하셨으나 그의 본성은 사교적이었다. 그는 유식한 자와 부자들 뿐아니라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의 초청을 받아들여 접대를 받으셨다. 이러한 잔치에서 그의 말씀은 고상하고 교훈적이었다. 그는 방탕과 취하는 정경을 결코 용인하지 아니하였으나 순진한 행복에서 즐거움을 찾으셨다. 유대인의 혼인은 인상적인 행사였으며 그 기쁨은 인자에게도 불쾌한 일이 아니었다. 혼인 잔치에서의 이적은 유대인들의 편견을 폐하는 일로 바로 향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동정과 겸손의 교훈을 배웠다."

니고데모에 대한 다른 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방문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희생제도 그 자체에 죄를 속하는 미덕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표상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졌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제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저희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는;

"경건을 공언하고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저

들의 구원을 의존하였던 유대인들보다도 비록 죄인이지만 그녀가 그리스도 왕국의 후사가 되는데 더욱 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구세주와 선생이 필요없다고 느꼈으나 이 가련한 여인은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다. …

예수는 유대인이었지마는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로이 섞이셔서 유대 국가의 관습과 완고한 신앙을 무시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의 봉사 사업의 초창기부터 그분께서는 피상적인 도덕성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경건을 공개적으로 꾸짖으셨다. …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낮은 담이 있어서 이것이 바같뜰과 성전 건물을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하여 놓았다. 이방인들은 바같뜰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으나 오직 유대인들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사마리아인이 만일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을 모욕하였다는 죄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성전과 그 봉사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동정의 끈으로 이방인들을 곁에 오게 하시고 당신의 하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거절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유하신 것은 그의 말씀을 듣기에 매우 열심한 영혼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제자들은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였으나 아직도 유대인들의 완강한 고집과 편협한 가르침의 감화 아래 있었다. 저들은 저들 국가에 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적개심을 품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이 말씀과 그 전에 인용한 말씀의 관계를 이해하겠는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있던 벽을 헐으시는 일을 생각하셨고 적개심을 품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그 벽을 없애 버리기를 원하셨을 때 그가 원수된 것(enmity)을 폐하심으로 담을 헐어버리신 것을 알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던 분리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예수의 행위를 보고 저들은 이상히 생각하였다. 저들은 예수의 모본을 따라가기를 거절할 수 없었으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었다. 충동적인 베드로와 사랑스러운 요한도 이 새로운 법에 복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불만을 겨우 참았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는 동안 예수께 충성하여 저들의 편견을 억제하였다. 저들은 예수께 경의를 표하는데 실패하지 아니하였으나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이 꼭 배워야할 교훈이었다. 저들은 경멸과 증오심을 갖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제자요, 대사로서 긍휼과 동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저들의 마음은 저들과 같이 사랑과 친절과 오래 참는 가르침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활짝 열려져야 하였다.

예수께서 율법의 위엄을 낮추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높이시기 위하여 오셨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편견과 그릇된 사상으로 곡해하였다. 저들의 무의미한 강요와 요구는 다른 국가의 백성들간의 논쟁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무의미한 금지 규정의 모든 방법으로 장벽을 쌓았다. 그리하여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거룩한 주의 날이라 부를 수 없었으니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괴로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불을 지피는 것을 금하였고 심지어 그날에 촛불을 켜는 것까지도 금하였다.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편협하여져서 자신들이 만든 무의미한 규례에 종이 되었다. 그 결과로써 저들은 자신들

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의존하였다.

자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죄였다고 한다면 저들이 고용한 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은 저들 자신이 율법을 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저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완전히 희망이 없으므로 개선되거나 더 타락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킬수 없는 법을 주신 일이 없다. …

랍비들의 생명없는 열변에 관심없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단순함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세속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이 이것을 뜻하거나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주저함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 자비와 희생의 말씀과 그분의 사업으로 예수께서는 오랜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무거운 짐을 없이 하시고 그 대신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셨다.

저들이 믿는다고 공언하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의 모든 자세한 것을 기록하였다. …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은 저들의 정당하지 못한 편견과 설명할 수 없는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편협해졌다. …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 교만이 마음에 가득했다. 자신을 높이려는 저들의 희망은 성소 봉사에서도 나타났다. 저들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의를 받는 것을 사랑했고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의 말을 듣는 것을 만족해 하였다. 진정한 경건이 소멸되어 감에 따라 저들의 그들의 유전과 의식에 더욱 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보자.

"이러한 교훈이 결과를 낳았고 재난과 핍박이 저들 이방의 원수들로부터 오면 올수록 유대인들은 신성한 율법에 의하여 명하여진 외형상의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는 관습으로 되돌아갔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들은 이 의식에 무거운 짐을 부과하였다. 저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가장 편협하게 해석하도록 이끌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들이 저들에게 나온 요구들이 율법의 신성함을 모두 소유한 것처럼 여길때까지 저들은 유전과 저들 조상의 관습으로 저들 주위에 담을 쌓았다. 저들 자신에 대한 이러한 자만과,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한 편견으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더욱 더 멀어져 갔다.

그리스도 당시에 요구와 금지 사항들은 매우 무거운 짐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선언하셨다. 의무의 거짓 원칙과 경건과 신성함의 외형적 시금석은 참되고 명확한 하나님의 계명을 흐리게 하였다. 외형적 의식의 철저한 수행으로 참된 의식은 무시되었다."

영원한 삶

원 동 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때가 차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갈 4:4).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때가 이르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의 경륜이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되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니, 이것이 곧 '평화의 의논'이다. 그리하여 예정한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는 경륜대로 전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탄생하시게 되었다. 이 사실은 선지자 미가가 일찍이 예언한 것인데, 이르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하였고, 공생애 시작에 관해서는 다니엘의 예언서 가운데 그 연대까지 분명히 예언되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정하신 그 시간에, 예정하신 그 장소에서 가장 비천한 환경 가운데 탄생하시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목자들과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와 축하를 받으셨다.

어렸을 때

그 후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갔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나사렛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하였다. 이는 당시에 왕으로 있던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아기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아기를 해하려던 헤롯 왕이 죽은 후에야 그들은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40, 52).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충실히 자라고 있음을 잘 나타내었다. 어린 예수는 그 지혜와 기능이 뛰어나게 자랐으며,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마음과 육체의 능력 또한 균일하고 자연스럽게 잘 발달하였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였으며, 굽히지 않는 인내력과 변함없는 성실성을 가졌었다. 그의 어머니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자라남을 주목하였으며,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리고 어린 예수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힘썼다. 그러므로 예수는 당시 랍비(유대인의 선생)들의 학교에서는 배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았고, 또한 천연계의 모든 사물을 주목하여 살피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었다.

그리하여 그는 열 두살 되던 유월절에 그 부모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일행이 돌아올 때에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랍비들과 문답하고 있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눅 2:46, 47).

과연 열 두살 난 예수의 슬기로운 질문과 그의 놀라운 대답은 당시에 지식을 자랑하던 랍비들을 놀라게 하였다.

어른이 되기까지

그는 삼십 세가 되기까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서 그의 아들로 자라나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 그 동안에 그는 인간의 온갖 고통과 쓰라림을 맛보면서 요셉의 목수 일을 신실히 도왔다. 그는 날마다 수고스러운 노동을 하였으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책임을 잘 감당하였다. 그는 같이 모여서 쓸데없는 장난이나 한담을 할 만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몹시 악한 동네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반문할 만큼 악한 습관이 가득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에 사시면서도 그 악한 습관에 물들지 않으셨다. 그는 항상 자신의 순결을 보전하시기 위하여 매우 경계하고 주의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랑과 동정심이 많으셔서, 고난 당하는 자를 보면 도와주고, 멸시 당하는 자를 보면 위로하고, 연약한 부녀들과 아이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4) 하였다. 그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도 죄 없는 생활을 하셨다.

침례 받고 공생애에

유대인들은 삼십 세가 되어야 공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삼십 세가 되어서야 공생애에 나아가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다. 그가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가실 때에, 요한은 그에게서 기이한 감응을 느꼈다. 어딘지 모르게 범할 수 없는 위엄과 깨끗하고 고상한 기상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만은 신성한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가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야가 아닌가 생각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확신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 개인적으로 볼 때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침례는 회개한 자가 그 죄를 물에 장사해 없이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으므로, 침례 받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되, 온 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았으며, 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이에 요한은, 예수께서 틀림없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무리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36)라고 말하였다.

시험을 당하심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장차 행하실 사업을 구상하시며 능력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광야로 나아가셨다. 거기서 그는 40일간을 금식 기도하시며 마음을 준비하셨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사단은 이 때야말로 예수를 유혹할 만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제일 먼저 식욕을 이용하여 그를 시험하였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하였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먼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에 답변하셨다. 이에 사단은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그의 자만심을 일으켜 보려고 하였다. 사단은 그를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 내리라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마 4:7)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마 4:7)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써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 다음에는 사단이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9) 하였다.

이 말에서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신 예수께서는 곧 물리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하셨다. 이같이 사단은 사람을 시험하되, 먼저는 먹는 문제, 다음은 교만심을 길러 주는 명예, 그 다음은 세속적 번영과 권력, 이 세 가지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는 것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안전히 살아가는 훌륭한 방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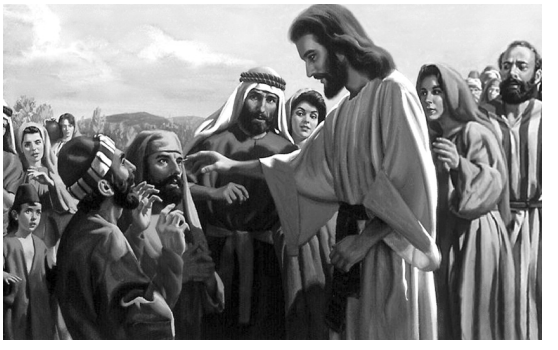
봉사와 전도 사업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사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셨다. 안식일이 이르매 그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사 당신의 사명에 관하여 예언한 바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 19; 사 61:1, 2절 참고). 읽기를 마치시고 앉으시며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 하셨다. 이는 곧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에게서 성취됨을 확증하는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

그는 각 회당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자와 쇠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다. 가난한 자의 동정자가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과부와 고아들의 보호자도 되시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축복자도 되셨다. 모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자들이 그에게서 해결책을 구하고, 모든 마음 상하고 번민하는 자들이 그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의사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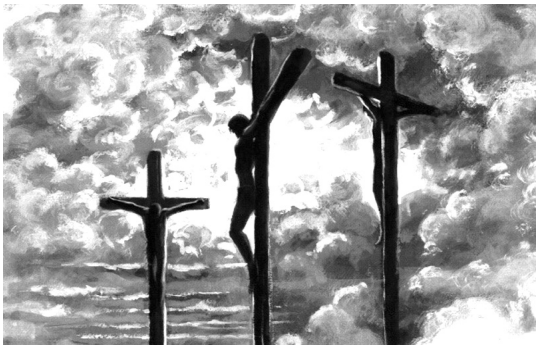


그는 사람의 지혜가 이해하지 못할 허다한 이적을 행하셨다.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고 문둥이가 깨끗하여지며, 사귀 들린 자가 나으며,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아났다. 그 뿐만 아니라, 떡 다섯 덩이와 생선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어가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말씀으로 말라죽게도 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셨은즉 이것이 곧 그분이 신성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의 탄생에서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보았거니와, 또한 그의 생애에서 단순한 인성이 아니요 신성을 갖추신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만물을 만드신 이시니 창조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 그가 인성을

쓰셨으나 오히려 신성을 가지셨으니,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가 되셨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명과 십자가

예수께서는 신성으로 인성을 쓰신 것을 특권과 자랑으로 생각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 인자(人子) 곧 사람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좋아하셨다. 그가 당신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고 하셨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하였다. 예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요 목숨을 바쳐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저희를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 15)고 하셨다. 여기서 뱀을 든다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의미한 말씀인데, 옛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있을 때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온 무리가 불뱀에게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 그 때에 모세가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민 21:8) 하셨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었을 때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상징했던 옛 일을 상기시키면서, 당신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호소를 하신 것이다. 과연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지극한 희생의 기념물이다.

크신 교사 예수

예수의 말씀은 예수 자신의 생애의 경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의 품성의 표현이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곧 진리이셨다. 예수의 교훈을 유력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신실한 견책자이셨다. 예수처럼 악을 미워하고 그렇듯이 두려움 없이 죄를 견책한 사람은 없었다(교육 103).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가 모든 신실치 못하고 비루한 것들에게 있어서 견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발하는 빛이 비칠 때에 사람들은 저희 자신의 더러운 것과 저희 자신의 생애가 가진 목적이 얼마나 비루하고 허위적인지를 깨달았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저희를 끌어 들였다. 인류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가치를 이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악은 당신이 축복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사람들의 원수라고 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타락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그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있는 것을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타락한 중에 있는 인류를 보시고 거기는 멸망밖에 볼 수 없는 데서 오히려 희망의 여지를 찾아 내셨다. 요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는 향상할 기회가 있는 것을 인정하셨다. 시험을 받고 패배하고 그 감정까지를 잃어버리고 거의 멸망하려고 하는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견책하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저희를 맞으셨다.

산상 설교 가운데서 주신 축복들은 전 인류 가족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인사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상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 든 큰 무리를 보시고 순간에 당신 자신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신 듯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빛의 세계의 친근한 인사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리하여 예수의 입술에서는 마치 오래 닫혀 있던 샘물에서 물이 솟아 나오듯이 축복의 말씀이 흘러 나왔다.

세상에서 총애를 받는 야심적인 자아 만족을 일삼는 무리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그는 아무리 가난한 자이라도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다.(교육 103, 104).

명상의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 15).

메시아의 강림이 처음으로 반포된 곳은 유다 지방이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선구자의 탄생이 그에게 예고되었다. 천사들은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동방 박사들이 그를 찾아 예루살렘에 왔었다. 선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그의 신성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침례 요한의 전도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에 관한 그의 증거를 들었다. 유다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처음 제자들을 용납하셨다. 그의 초기 봉사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보내셨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섬광처럼 빛나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늘의 진리에 관한 교훈, 이 모든 것은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산헤드린 앞에서, 자기는 영존하시는 분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그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의 사자들로 존귀하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기회가 찾아온 시기를 알지 못하였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공공연한 증오심으로 무르익어 갔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산헤드린은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다른 계급에로 향하셨다(시대의 소망 309, 310).

남은 자손의 경건의 생활(II)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마음을 훈련시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불신의 여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을 갖기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불신의 방향으로 길들여진 마음을 묶고 있는 그 영향력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로를 따름으로 영혼은 사단의 올무에 묶여 버렸으며 영혼을 점점 더 조이는 무서운 그물을 끊기에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의심의 편을 택한다는 것은 사단의 대리자를 조력자로 요청하는 것과 같다. 불신의 길에 길들여진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방법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어두움에서 나와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의문과 의심과 비판의 노선으로 자신을 길들이는 사람은 불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원고 3, 1895.

장래의 시련을 위한 준비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앙을 인하여 시련을 받게 될 때 판에 박은 듯한 말을 제시하려고 준비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준비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먹고 살며 신앙을 증진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면 시련을 당할 때에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바로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어진 지식을 그것이 필요한 바로 그 때에 그들의 기억에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안식일 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40, 41(영문)(1900).

시련의 때가 올 때,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역설하는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만족할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크게 무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논쟁이 생기기 전에는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홀로 서서 단신으로 그들의 신조를 설명하도록 강요당하면 그들은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얼마나 분명치 않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놀랄 것이다. −교회증언 5권, 704(1889).

도덕적인 능력을 제어함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심령은 모든 도덕적인 부패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42(1893).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유익한 사물에 고정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마음이 먼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찮고 피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힘은 훈련을 받아야만 하며 연습을 통해 그것들은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11(1881).

우리에게는 순수하고 고상한 사고를 계발시키고 고양시키며 저속하고 육적인 힘을 기르는 것보다 도덕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자아 방종의 식욕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의료 선교, 278(1896).

에녹의 모범

에녹은 승천하기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나 그 당시의 세상 형편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성품을 갖기에 오늘날보다 더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으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시도록 기도드렸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여하한 행동도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셨으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 관한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요?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그와같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길과 방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시켰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리라고 그의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설교와 강연 1권, 32(1886).

에녹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들이 있었다. 그는 오늘날과 같이 의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속에서 살았다. 그가 호흡한 분위기는 지금과 같이 죄와 부패로 오염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 편만해 있던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와같이 우리도 역시 순결하고 타락하지 않은 생애를 살 수가 있다. –교회증언 2권, 122(1868).

과거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E.G.화잇 자서전, 183, 184(1902).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각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가 있다면 개인의 헌신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지금이다. 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에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사단과 그리스도 중에서 어느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하라.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고 있다. 한동안 그들은 무덤에 잠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신앙에 대한 그대의 공언이 아닌, 그대의 애정의 상태가 그대의 보장이 된다. 마음의 성전은 그 더러움에서 정

결해져 있는가? 나의 죄악들이 도말되도록 나의 죄들은 고백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가? 매 순간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과 그러므로 나의 봉사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원고 87, 1886.

우리는 자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문 시조, 1892.11.21.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생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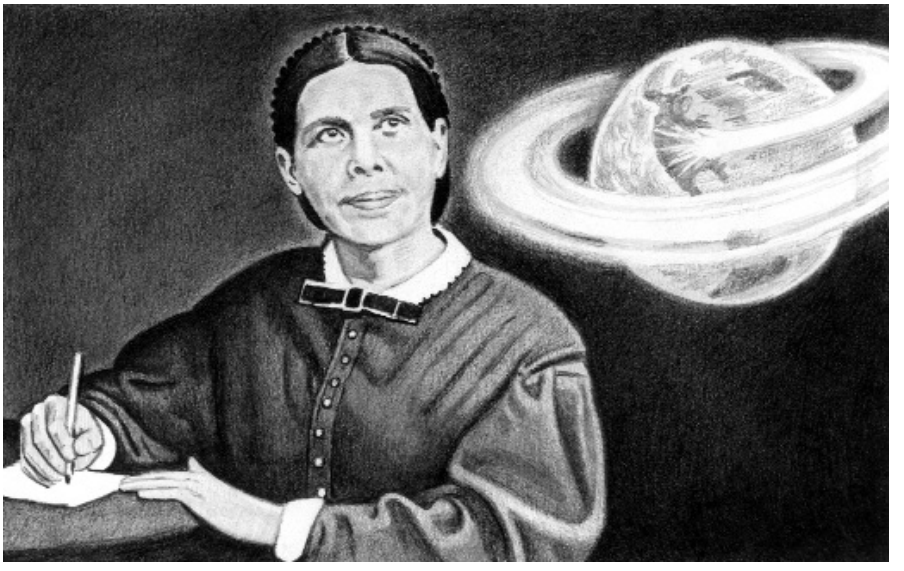
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분주히 사업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날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갔다. 우리 각자는 미구에 닥칠 큰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설교와 강연 1권, 25(1886).

우리는 심판의 날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다. 비록 그날이 오래 지체되었으나 그 시기가 이제 문 앞에 이르렀으며 또한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곧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며 죽은 자들을 깨울 것이다. –새 자녀 지도법, 560, 561(영문)(1892).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갖춤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할 높은 목표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되고 정(淨)한 본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 주제들에 대한 명상, 복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맛볼 때, 사도는 그것을 "내세의 능력"(히 6:5)을 맛보는 것으로 나타낸다. –교회증언 5권, 740(1889).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227(1891).



품성 형성과 절제(III)

김 동 춘

서 문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 동안 이 지상에 있는 예배자들은 저희 생애를 엄밀히 살펴야 하며 저희 품성을 의의 표준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복음전도, 224.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8.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실물교훈, 74.

"죄의 용서가 예수님의 죽음의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그분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죄의 파멸에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소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하셨다." -교회증언 5권, 537.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세를 위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교회증언 4권, 236.

소화의 생리학

1 음식은 천천히 오래 씹을 것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음식은 천천히 먹어야 한다. 입 속에는 소화물질을 분비하는 침 샘이 3곳이 있다. ① 귀밑샘(이하선) ② 혀밑샘(설하선) ③ 턱밑샘(이하선)

이 3곳 중에 귀밑샘(이하선)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곳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호르몬) 중 「파로틴」과 「펠옥시타제」가 있다. 이 물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아래와 같은 효능을 나타낸다고 한다.

1) 「파로틴」이 하는 일

① 조직 발육을 위해 영양을 도모하고 세포 생산과 발육에 영양을 도와준다.
② 경조직 발육을 촉진시키며,
③ 근 무력증에 탄력을 주고,
④ 위하수증을 정상으로 올려주며,
⑤ 변형성 관절증에도 효과가 있다.
⑥ 동맥 경화증과
⑦ 고혈압을 예방하고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⑧ 갱년기 장애와
⑨ 노인성 백내장과
⑩ 당의 균형을 유지시키고(당뇨예방),
⑪ 요통을 제거하고,
⑫ 인체를 젊게 재생시키는 직무를 한다.

타액 강력 효소 <소화, 분해, 해독> 중에서 또 하나는 「펠옥시타제」인데 이것의 효능은 발암물질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식품 첨가물이 세계적으로 1,500여 종이 있는데 아이들이 잘 먹는 소시지, 햄버거에는 AF_2 첨가물질이 들어간다.

이 화학물질은 발암 물질인데 5년~10년이 되면 암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오래 씹으니 없어졌다고 한다.

일본 동지나 대학 의학부에서 연구 실험하여 발표한 것 중 또 하나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침 속에 넣었더니 98%가 사멸되었고, 암 바이러스는 99%가 사멸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침 속에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효소의 성분도 함유된 것이 사실이다.

◎ 증언의 말씀

① 음식은 천천히 잘 씹어라.
② 씹으면 치아와 위장에 유익하다.
③ 좋은 피를 만들며 힘을 준다.
④ 천천히 먹으라, 천천히 씹으라.
⑤ 음식물의 유익은 먹는 양에 있지 않고,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다.
⑥ 입 맛의 만족은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⑦ 타액분비를 위해서 마른 음식이 더욱 좋다.
⑧ 철저히 씹으면 신체 조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 씹는것과 우리의 품성

밥(탄수화물)을 오래 씹으면 완전탄수화물(현미, 통밀, 통곡류)에는 우리 인체에 매우 중요한 필수 물질인 「당사슬」이 만들어 진다. 이 당사슬에는 뇌에 꼭 필요한 영양물로서 우리의 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① 「당사슬」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완전탄수화물과 침(프티알린)이 잘 섞이면 「완전 포도당」이 입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완전 포도당」이 곧 「당사슬」이다. 백미나 흰 밀가루는 「당」은 만들어지지만 「당사슬」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백미나 흰 밀가루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기 때문이다. 즉 생명의 요소가 없다는 말이다.

② 「당사슬」의 기능(하는일):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필수 물질로서 생명유지와 세포간 정보제공, 활성산소의 손상을 막고 회복하는데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 당사슬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됨

③ 「당사슬」이 품성에 미치는 영향:
「당사슬」은 대뇌 영양물질로서 전두엽(정서중추)에 관여하므로 도덕성, 판단력, 추리력, 상상력 등 우리의 정서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당사슬」이 결핍되면 정서안정은 물론 침착성, 도덕성까지도 결여되어 흥분, 집중력, 기억력, 의지력이 상실되며 영적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적 사고와 의욕 상실, 산성 체질이 되며, 우울증, 치매 등 대뇌 변질까지 일어난다. 그러므로 완전탄수화물에 대한 인식과 천천히 오래 씹는 것은 우리의 품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2 올바른 음식 배합(합식법)

"합당한 식품 배합에 관한 지식은 큰 가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편지 213,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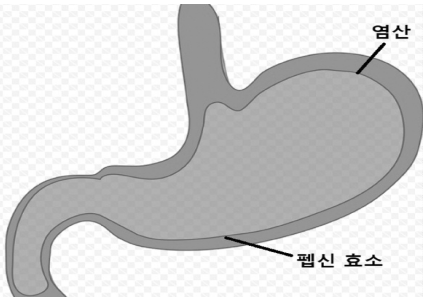
1) 산과 전분의 혼합

한 티스푼의 식초에는 침 속의 전분 소화효소인 「프티알린」을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초산」이 들어있다. 신 과일에 들어 있는 산은 침샘에서 나오는 「프티알린」을 파괴시키므로 전분 소화를 중지시킨다.

하버드 대학의 퍼시하우 박사는 식사 때 신 과일을 먹지 말고 30분 전에 먹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생리학자들은 산성이나 약 산성도 「프티알린」을 파괴시킨다고 말한다. 「프티알린」의 기능을 막게 되면 전분 소화가 중지된다. 그러므로 위장 속에서 혼합되면 발효가 일어나 술을 만든다.

2)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혼합

탄수화물은 입에서 나오는 「프티알린」으로 소화되고, 단백질은 위의 아래 부분에서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소화된다. 그러므로 콩밥이나 팥밥은 위장 안에서 발효가 쉽게 되어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 혼합법에 맞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다. 위의 아래 부분에서 단백질 소화 효소인 「펩신」이 나오기 때문에 콩(단백질) 제품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먼저 먹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발효를 억제시키는 효소가 침 속에 들어 있는데 바로 「파로틴」이다. 오래 씹지 않으면 「파로틴」의 효능을 발휘할 수 없다. 콩밥은 60번~80번 정도 씹어야 발효를 예방할 수 있다.

3)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혼합

고기와 견과류, 고기와 계란, 고기와 치즈, 계란과 우유, 계란과 견과류, 치즈와 견과류, 우유와 견과류, 질이 다른 두 종류의 단백질을 혼합하여 섭취하지 말라. 1차 식품 곡류와 2차 식품 육류는 배합 법칙에 맞지 않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계속 섭취하게 되면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한 끼에 한 종류의 단백질 음식만 먹도록 한다.

4) 산성과 단백질의 혼합

약과 과일의 산은 「펩신」(단백질 소화 효소)을 파괴하거나 위액의 분비를 막아 단백질 소화를 방해한다. 위액은 입과 위에서 산성 식품이 있을 때는 분비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유명한 생리학자 「파브로프」는 신 과일과 단백질이 위장에 함께 있을 때는 단백질 소화에 심각한 장애를 주어 부패하게 한다고 증언하였다.

"단백질과 산성 식품은 혼합하여 먹지 않는다."

5) 지방과 단백질의 혼합

"동물의 질병이 사람들 사이의 악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란과 우유와 크림과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때가 미구에 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교회증언 7권, 135.

"버터는 식탁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식탁 위에 있으면 어느 누군가는 지나치게 사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소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편지 37, 1901.

"음식은 단순하나 식욕을 돋울 만큼 맛있게 장만하여야 한다. 음식에서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라. 그것은 그대가 장만하는 어떤 음식일지라도 그르칠 것이다." -교회증언 2권, 63.

음식에 있는 지방은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과 「염산」의 양을 감소시키며 위 활동을 50%까지 현저히 줄인다. 이런 방해로 소화 시간은 늦어지게 된다.

지방이 함유된 식품들은 지방이 없는 단백질 식품보다 소화 시간이 더 필요하며 위장 안에서 오래 머물면 다음 음식의 소화에 지장을 주고, 발효의 원인이 되어 음식이 위장 안에서 썩게 만든다. 그러므로 "지방과 단백질 식품은 혼합하여 먹지 않는다."

풍성한 녹색 채소는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할 경우 단백질(동물성 단백질)이 소화에 미치는 방해를 중화시킬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녹색 채소를 4배 이상 곁들여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당분과 단백질의 혼합

"설탕은 위장에 좋지 않다. 그것은 발효의 원인이 되므로 두뇌를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초래한다." -원고 93, 1901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고기보다 더욱 해롭다." -교회증언 2권, 370.

과일의 당과 꿀과 설탕 등의 당분은 위액 분비와 소화 작용을 방해한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된 당분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한다. 당분은 입과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소화되므로 당분만

섭취하면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장으로 보내진다. 당분이 단백질이나 전분 등 다른 음식과 같이 섭취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위에 머물러 다른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발효시킨다.

"당분과 단백질은 혼합하여 먹지 않는다."

7) 당분과 전분의 혼합

"설탕은 조직을 막히게 한다. 그것은 살아 있는 기계의 작용을 방해한다." -교회증언 2권, 369.

"결국에는 신체의 퇴화와 쇠퇴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원인이 된다." -편지 142, 1900.

전분(밥이나 빵)은 입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소화되는데 당분은 입이나 위에서는 전혀 소화가 되지 않고 소장에서만 되므로 당분만 섭취할 때는 위에서 곧장 장으로 보내지지만 다른 음식과 같이 섭취될 경우에는 그 음식이 소화가 될 때까지 위에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당분은 위장의 따뜻한 온도와 습기에서 발효를 일으켜 소화에 지장을 주며, 결국엔 위장에서 음식들을 썩게 만든다. 생리학자 레지날드.F.E.오스틴은 "전분과 설탕의 혼합은 발효를 일으켜 소화에 악영향을 가져온다"고 말하였다.

"전분과 당분은 함께 먹지 않는다."

8) 멜론과 다른 음식의 혼합

수박, 딸기, 참외 등 단 과일과 신 과일이 다른 음식과 혼합될 때 발효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며 이런 음식(과일)들은 한 가지씩 단일로 섭취하면 더욱 유익하다. 그리고 특히 포도는 발효가 잘되므로 위장 안에 다른 음식이 있든지 다른 과일과 혼합하여 먹으면 심한 발효를 일으키므로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는 공복 상태에서만 섭취해야 포도 속에 들어 있는 영양소를 소장에서 소화하여 좋은 피를 만들 수 있다.

9) 신 과일과 단 과일의 혼합

혼합 법칙에 맞지 않다. 신 과일은 신 과일대로, 단 과일은 단 과일대로 구분해서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신경이 둔한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병이 나도 무슨 원인으로 발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계속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영향을 받아 큰 병을 일으킨다.

10) 과일과 채소의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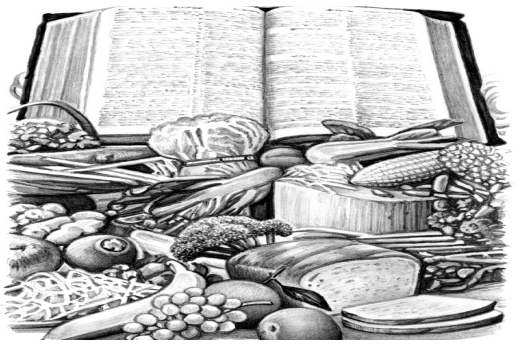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만일 소화력이 약하면, 그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때때로 속을 불편하게 하여 정신적 노력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치료봉사, 300.

과일과 채소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한 끼에 같이 먹는 것은 발효의 원인이 된다. 과일은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채소는 위장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과일과 함께 위장에 있으면 발효가 된다. 술이 되면 뇌를 혼란하게 만든다. 술 먹는 사람은 하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여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합식법과 우리의 품성

"먹는 데 부절제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좋은 질의 음식일지라도 신체 조직에 약화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이며 보다 더 예민하고 보다 더 거룩한 정서를 마비시킬 것이다. …

목사들은 언뜻 보기에 예의 없는 듯이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선의적 이나 현명하지 못한 이 접대를 거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목사에게 양자 택일 할 수 없을 만큼 참된 친절을 지나치게 베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음식으로 목사들을 유혹하면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해야 할 귀중한 재능이 손실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살 동안에 그들의 재간의 활력과 힘을 절반이나 빼앗긴다. 다른 누구보다도 목사들은 두뇌력과 신경의 힘을 절약해야 한다. 그들은 신경을 자극하고 흥분시킬 경향이 있는 음식이나 음료는 모두 피해야 할 것이다. 흥분 뒤에는 기능 저하가 따른다. 왜냐하면 지나친 방종이 정신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곤란하게 하고 혼란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 사람도 자기의 식사 습관에 엄격한 절제를 준수하기 전에는 영적인 사물에 성공적인 일꾼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강을 위하여 마땅히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면서 정신과 몸을 약하게 하는 노선을 계속 고집하는 자들 위에 당신의 성령을 머물게 하실 수 없으시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55, 56.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성화란 단순히 이론이나, 정서나, 또는 말의 형식이 아니요, 오히려 활기차고 활동적인 원칙이며, 일상 생활에 침투하는 것이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우리의 습관이 육체적·지적·도덕적 건강 유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 우리가 그릇된 습관으로 더럽혀진 제물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롬 12:1 영문 참조)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요구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81.1.25.

◎ 조합법 – 증언의 말씀(요약)

① "합당한 식품 배합에 관한 지식은 큰 가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편지 213, 1902.

② "음식물의 부적당한 배합으로 장애가 생기고, 발효가 시작되고, 피가 더러워지며, 두뇌가 혼란해진다." –교회증언 7권, 257.

③ "과일과 채소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위에 혼란과 피로의 원인이 된다." –치료봉사, 273.

④ "정신력을 추진하는 능력이 없어진다." –치료봉사, 273.

⑤ "야채와 과일은 따로 따로 요리하는 것이 좋다." –치료봉사, 273.

⑥ "먹은 음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부적절한 배합은 해를 끼친다." –교회증언 7권, 257.

⑦ "다른 사람들은 조화되지 않은 음식을 한 끼에 먹는다. 만일 남녀들이 위장을 괴롭힐 때 영혼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히며, 위를 남용할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심히 굴욕당하시는지 기억하기만이라도 한다면, 그들은 위장의 건전한 작용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용감하게 극기할 것이다" –원고 93, 1901.

결 론

"건전한 원칙을 따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망쳐놓았다. 건강 개혁이 계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그 결과 영성의 큰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행하였더라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장벽들이 생겨났다.

○ 빛을 받은 자들이여!

이와 같은 큰 기회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 개혁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우리가 그릇되게 먹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경박하게 하고 우리의 재능들을 남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기적인 행습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할 것인가? 우리의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생애를 살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실천적인 복음이 되는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에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비신자들의 발에 거치는 모든 돌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격정을 강화시키는 식욕을 남용하느니보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인마다 자기 생애를 남김없이 바쳐서 주님을 섬기라고 호소하신다. 그분은 결정적인 개혁을 요구하신다. 만물이 저주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하게 되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날 곳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들이 건강을 해하는 각종 방종을 끊고 떠날 때, 그들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더욱 명료한 식별력을 가질 것이다. 종교적인 경험에 놀라운 변화가 보일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2.5.27.

2019년 기도력

마라나타

엘렌 G. 화잇

7월 1일(월)

종교의 삼중 연합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6:13, 14.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왕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심연(深淵)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왕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5권, 451).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深淵)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차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

법왕 교도들과 개신교도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도래케 하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88, 589).

우리 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실제적인 독재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렬하게 찾아온 압제가 되살아나는 것일 것이다(교회증언 5권, 712).

7월 2일(화)

사단의 삼중 연합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계 13:4.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용의 정신을 받고 있다.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공언하는 바와 정 반대가 된다는 것을 나타냄으로 사단의 정신으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용과 연합한다.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의 신으로 개신교들과 법왕교도들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고, 마치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종되고, 통제되고, 지배되는 자기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용의 정신은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투옥되고 의회에 불려가고 과료에 처하여질 것이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함으로 사단은 여호와의 절대권을 빼앗을 것이다. 죄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위에 뛰어나서 행동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는 뚜렷한 대조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위해 당신의 종들이 받은 손상을 당신 스스로가 받은 손상으로 간주하실 것이다. 마지막 결정이 내려질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계명들을 택하거나 큰 배도자를 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실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의 입은 영원히 닫혀질 것이다. 적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서신 28. 1900년).

7월 3일(수)

진리의 타락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 24:23.

마지막으로 배교하는 일이 진전되기 전에 믿음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오묘에 관한 뚜렷한 견해가 없어질 것이다. 진리는 차례 차례 타락할 것이다(영문 시조, 1984.5.28).

하나의 증거로서 만국에 진리가 전파된 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활동할 것이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신 기별을 갖고 있다. 그분이 나에게 큰 빛을 주어 보내셨다"라고 외치는 음성들이 매우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계표를 옮기고,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헐어 버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그분이 성별하시고 축복하신 날을 대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려는 더욱 결정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강압적인 법률로 이 거짓 안식일 준수를 강요할 것이다(성경주석 7권, 985).

장차 온갖 기만이 일어날 것이므로 우리는 견고한 터전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져서는 안된다. 원수는 성서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짓 이론들을 들여올 것이다.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복음전도, 324).

약간의 진리가 혼합되어 있을 지라도, 근본적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계시들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법칙을 주셨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 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가려뽑은 기별 2권, 98).

우리가 말세에 가까이 이를수록 거짓이 진리에 너무나 잘 섞여있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결코 안된다(성경주석 7권, 907).

7월 4일(목)

예언상의 미국

"내가 보매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 13:11.

위에 말한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가 있으니 이는 곧 미국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440).

여기에 우리 자신들의 나라(미국)의 기원과 성장에 대한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결백과 온순의 상징인 양같은 뿔들은 우리 정부의 두가지 기본 원칙 곧 공화제와 신교주의에 나타난 특성을 잘 나타낸다(예언의 신 4권, 277).

주님께서는 태양이 비치는 어느 나라보다 미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당신의 백성이 양심의 명령대로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하셨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순결하게 발전하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되시는 분에 관한 생명의 진리가 자유롭게 가르쳐졌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명령을 따라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문명 기관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복음의 특권에 관한 자유를 나타내도록 하셨다.

그러나 모든 의의 원수는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볼온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존을 잊어버리게 할 큰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우상숭배인 세속주의와 탐심은 대기만자의 활동을 통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질 때까지 편만할 것이다(원고 17, 1906년).

나는 사단이 우리에게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단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질 것이다. 자유를 자랑하던 우리 나라(미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끝나고 말 것이다(복음전도, 236).

우리 나라(미국)가 입법회의에서 사람들의 신앙상 특권에 관한 양심을 속박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세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폐지될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적인 배도가 국가적인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성경주석 7권, 977).

7월 5일(금)

개신교도와 로마교도들에 의한 박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10:22.

우리는 박해를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두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80.4.29).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괴로운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나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전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원고 30, 1889년).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전능자의 방패를 그 위에 펼치셨던 국가가 개신교의 원칙들을 포기하고 법령을 통해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로마교회의 편을 들고 그 뒤를 후원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진실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로마의 학대가 있게 될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06).

(미)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敎令)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 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445).

법왕권이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다시 찾으려고 할 것과, 소위 개신교계의 기회주의적인 양보를 통해 박해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때에만 설 수 있다. … 개인적인 위험이나 재난을 예상함으로 낙담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활력과 소망을 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야 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더욱 분명한 증거들을 주실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367~370).

7월 6일(안)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를 당함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이유없이 미움을 받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일만을 행하셨던 그분께서 비천한 범죄자와 같이 취급되어 사형선고를 받으셨다면, 그분의 제자들도 아무리 생애에 흠이 없고 품성에 비난할 여지가 없더라도 그와 비슷한 취급을 예상해야 한다.

인간적인 법령들, 곧 선과 악의 제한을 구실삼아 사단의 활동을 통하여 제정되는 법령들은 높임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은 멸시를 받고 유린당할 것이다(성경주석 7권, 977).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기 동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법정에는 불법이 편만할 것이다. 재판관들은 네째 계명들에 충성하는 자들의 이론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령에 의해 그는 죽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하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법"이 최고의 법이 된다. 인간적인 법령을 존경하는 자들은 호의를 입을 것이지만 우상의 안식일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들은 호의를 입지 못할 것이다(영문 시조, 1898.5.26).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와의 분간을 할 수가 없으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이 없으되 다른 나무들은 시들어져서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마음이 거짓된 신자도 지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날 때가 이미 절박하였다. 반대여 일어나라. 완고한 억압이여 다시 활기를 가져라. 박해여 오너라. 그리하면 열심없는 외식하는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견고히 설 것이요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박해가 없는 평안한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02).

7월 7일(일)

이전의 형제들이 가장 심한 박해자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 24:10.

폭풍우가 임박할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여 성결함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참여하여 그 정신이 같아짐으로 모든 것을 거의 속된 사람과 한가지로 생각하게 될 것이요 시험이 이르는 때에는 곧 안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편을 택할 것이다. 일찌기 진리를 순종한 자들로서 재능이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다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형제되었던 자들에게 가장 심한 원수가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법정에 호출되어 자신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될 때에 이들 배교자들은 그들을 그릇 나타내고 비난하기 위한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될 것이며 거짓 보고와 암시로 법관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반대하게 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08).

하나님의 백성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생명마저도 그들이 거짓 예배에 조금도 양보하도록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선지자와 왕, 512).

그 때 금은 찌꺼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가 감탄하던 많은 별들이 그 때에는 어둠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들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 충성스런 사람들은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사망의 형벌 하에서 거짓 안식일에 대한 충성의 표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사단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가장 깊은 배도의 때에 이들 충성된 자들은 "세상에서 … 빛들로"(빌 2:15)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선지자와 왕, 188, 189).

7월 8일(월)

친구와 친척에게 배반당함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 11:36.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지고 교회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맹렬한 시련들로 체질을 당할 때 진정한 사람들로 생각되던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영에 마음을 둘 것이고, 반역자들에게로 돌아가서 거룩한 신뢰를 배반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가장 심히 박해하는 자들임이 입증될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행 20:30)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영에 마음을 둘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97.6.8).

시련의 때에 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형제를 배반할 것이다. 그들은 형제들이 숨은 곳을 알려주어 악인들로 하여금 추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자행하는 잔인하고도 비인도적인 행동에 놀라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였다(리뷰 앤 헤럴드, 1898.12.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이외는 어떤 사람의 손도 붙잡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친구들은 믿을 수 없음이 입증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원수에게 기만당한 친척들은 우리를 대적하여 어려운 환경에 빠뜨리고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부인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암흑과 위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원고 21, 1889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조소를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그들은 욕설을 들을 것이며, 그들의 말과 믿음은 오해를 받을 것이다. 냉담과 경멸이 순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지 모른다. …

부모들은 인기없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녀들을 가혹하게 대할 것이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역죄로 고발당할 것이다. 후견인들은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들을 강탈할 것이다. 악을 떠나는 사람들은 양심을 강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들로 말미암아 희생당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는 사도의 말은 머지 않은 장래에 입증될 것이다(서신 30, 1892년).

7월 9일(화)

죽음의 위험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 4:14.

놀라운 사건들이 머지않아 세상 사람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다. 환란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려 하고 있다. 그 때에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일 중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거나. 형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되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8.11.19).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려 공포될 법령은 에스더 시대에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을 거스려 공포한 법령과 매우 유사할 것이다. … 사단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직한 사람들을 지상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그의 음모는 사람들의 자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반대 세력에 의해 패배를 당하였다.

오늘날의 개신교 세계는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의 문을 지키는 모르드개를 본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그의 품성과 행동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견책이 된다. 그 불쾌한 방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남몰래 암살되어야 했다.

지나간 여러 시대 동안 성실한 자들을 거스려 음모를 꾸민 마음과 똑같은 기만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리고자 여전히 애쓰고 있다. 사단은 일반적인 관습이나 관례를 양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겸손한 적은 무리를 향하여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의논하고자 무법하고 악한 자들과 합세할 것이다. 성경상의 안식일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고소하는데 필요한 “기록되었으되”가 없으므로 그들은 부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강압적인 법의 원조를 구할 것이다. …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의 마지막 대쟁투가 전개된다. 또한 우리는 그 투쟁점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주님께서는 모르드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당신의 진리와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교회증언 5권, 450, 451).

7월 10일(수)

마지막 때의 순교자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 16:2.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각 사람은 두 가지 깃발 중의 한 깃발아래 정렬하게 될 것이다(하늘에서, 48).

두 군대는 서로 독특하고 구별될 것인데, 그 구별은 너무나 뚜렷하여 진리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편으로 나올 것이다. 마지막 쟁투가 있기 전, 이 거대한 사업이 싸움터에서 일어나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투옥되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도망하거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항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가 될 것이다(원고 6, 1889년).

우리 나라(미국)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왕권이 제도를 강요하는 법령을 세움으로 의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 것이다. …

로마 군인들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배도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한계에 달하였고 우리 나라에 죄악이 충만하여 자비의 천사가 날아가서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후에 선지자들이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표현한 고통과 번민의 골짜기로 들어간 것이다. 충성된 자들과 박해받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또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은 것처럼 순교자들의 무덤, 바다의 무덤, 산의 동굴, 수도원의 지하묘실 등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계 6:10)(교회증언 5권, 451).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은 이상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이 장면이 지나가고 난 후에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이 나왔다. 그때에 참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다(성경주석 7권, 968).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빼앗긴 생명들을 되돌려 주실 것이며, 의로운 자들을 영생으로 옷입혀 주실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97.12.7).

7월 11일(목)

흔들리는 시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2.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자 마자, 그 인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인장이나 표시가 아니라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진리를 확신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이 쳐지고, 흔들리는 시기를 위해 준비를 갖추게 되면 곧 그 시기가 닥칠 것이다. 사실상 그 시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무엇이 닥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땅에 이르고 있다(성경주석 4권, 1161).

혼란하고 당황하게 될 날들이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다. 갖가지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세속적인 풍습을 따른 사람들은 조소와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도 권세들에 굴복하는 것이 쉬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 사이의 싸움이다. 이 때에 교회 내에서는 금이 찌끼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외양만의 경건이나 천박한 경건과는 구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함을 찬양했던 많은 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풍성한 알곡만이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쭉정이가 구름같이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성소의 장식들로 꾸미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교회증언 5권, 80, 81).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범죄함으로 진리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비워놓은 자리들을 차지할 것이다. …

참된 그리스도인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여 성실하고 믿을만한 주인이 되어 올바른 태도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불평을 품고있는 사람들이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확고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범죄하여 배도한 사람들로 인하여 생긴 공백들을 메꿀 것이다(원고 97, 1898년).

7월 12일(금)

흔들림에 관한 견해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겔 38:19.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하였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하였으며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확고함과 진지함이 그들의 용모에 나타났으며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렀다. …

악한 천사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시선을 암흑으로 돌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대해 투덜거리도록 그들에게 흑암을 밀어 붙이면서 그들 주위에 몰려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였는데 악한 천사들의 유독한 분위기가 이들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몰려 들자 하늘 천사들은 그 두꺼운 암흑을 흩어 버리기 위해 그들의 날개를 계속 펄럭거리고 있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열렬히 부르짖을 때에 이따금씩 예수님께로부터 한 빛줄기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였다. 나는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고 간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 하나님의 천사들은 …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러 갔다. …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으며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참되신 증인의 권면에 기인할 것을 보았다. …

나는 크게 흔들림을 당하던 무리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 주위에서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의 무리는 두 배로 증가되었으며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효과가 컸다. … 나는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 천사는 "그것은 늦은 비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대답하였다(초기문집, 269~271).

7월 13일(안)

큰 외침으로 이루어질 연합과 분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 60:1, 2.

우리 주변에서 시련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대열에는 분리와 연합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싸움할 무기를 잡을 각오가 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정말로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지 못했음을 나타낼 것이고, 시험에 굴복당할 것이다. 큰 빛을 가지고 귀중한 특권들을 누리면서도 자신을 향상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핑계삼아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핍박의 폭풍우가 정말로 우리를 엄습하면, 참된 양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 우리를 떠나 방황하던 많은 양들이 위대하신 목자를 따르기 위하여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합하여 원수에게 공동전선을 펼 것이다.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험을 깨닫고 최상권을 위한 다툼은 없을 것이다. 참된 신자들 중 아무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며,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교회증언 6권, 400, 401).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별의 선포에 큰 능력과 영광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은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교회증언 7권, 17).

통치자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 가운데도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로 개심할 것이다. … 하나님의 대리자들 중 몇몇 사람들은 큰 악의 집단을 격파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질 때까지 그 사업은 계속 될 것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있을 때 이들 대리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개심하여 성도들과 함께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1권, 203, 204).

7월 14일(일)

교회가 쓰러질듯이 보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4, 15.

사단은 기만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고 자기의 능력을 최고의 능력처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쓰러지려는 듯이 보이나 쓰러지지 않는다. 시온의 죄인들이 키질을 당하는 동안, 곧 쭉정이가 귀중한 알곡에서 분리되는 동안에도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은 무서운 시련이다. 그럴지라도 그 일은 일어나야 한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로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죄악의 흠이나 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충성되고 참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남은 자들은 시험의 과정에서 힘을 얻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배도 중에서도 성결의 미를 나타낸다(성경주석 7권, 911).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다. 그 교회는 해체되거나 독립적인 개체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증거는 추호도 없다. 이 거짓 기별에 유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만을 당하고, 한 걸음 더 심한 기만을 당할 준비를 갖출 것이며, 필경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68, 69).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며 마지막까지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깨달을 때 힘을 얻으며 행복해진다(대총회 회보, 1913.5.27).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를 지금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진리를 배반하게 되기 때문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390).

머지않아 맹렬한 싸움을 시작할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대상이 될 것이다. 악의 연합은 세상의 세력으로 선동될 것이며 사단은 자신의 흉악한 계교와 거짓으로 기만할 수 없는 택하신 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비난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높임을 받으신 우리의 대언자시며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막아 버리거나 손을 거두어 버리시거나 약속을 어기실 것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0).

7월 15일(월)

교회의 정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 3:3.

기만자의 괴수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더욱 명확히 드러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의 기만은 매혹적인 매력을 더하게 되어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암흑의 왕자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공언하면서 암흑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도록 그리스도교계에서 역사하고 있다.

배도한 교회는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설복하기 위하여 세상과 마귀의 세력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법왕권에 충성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인간의 영혼을 시험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배교의 연합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인할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 금은 찌꺼기에서 분리될 것이며, 누가 경건하고, 충성되고, 진실하며, 누가 불충성하고, 쭉정이이고, 천박한지 분명해질 것이다. 그 때 참으로 많은 쭉정이들이 하나님의 키질에 의해 날라가 버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풍성한 알곡들 밖에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키질에 의해 날라가 버린 쭉정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의 시험과 시련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은 사람들이 진리와 의무에 굳게 서는 동안 자신의 의를 신뢰한 사람들은 암흑의 왕자의 검은 깃발 아래 정렬하게 될 것이다. 그 때 그리스도를 지지하기로 작정하였는지 벨리알을 지지하기로 작정하였는지가 나타날 것이다.

망설이던 사람들과 사정이 있어서 감히 치욕과 비난을 대항하지 못하던 자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반면에 무성한 나무들처럼 보였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마에나 손에 배도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92.11.8).

7월 16일(화)

사단이 그리스도로 가장함(1)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눅 21:8.

이 시기에 적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온전히 폐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반역은 무르익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반역의 진짜 지도자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 사단이다. 사람들은 기만을 당하여 그를 하나님의 위치에 세울 것이고 신으로 높일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께서 개입하셔서 사단을 높이는 일에 연합한 배도한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계 18:8)(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62).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사단)는 이적을 행하는 자로서 세상에 다닐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말로 고상한 감정을 표현할 것이다. 그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가장할지라도 한 가지 점에서 뚜렷한 구별이 생길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도록 할 것이다(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471, 472).

그는 안식일이 주일 중 일곱째 날에서 첫날로 바뀌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는 주일 중 첫날의 주인으로서 이 가짜 안식일을 자기에 대한 충성의 시금석으로 제시할 것이다(원고 153, 1902년).

하나님의 영광과 과거의 박해의 재현이 섞이는 때에 지상에 살아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은 생각해 볼 수 조차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천사들에 의해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계속적인 교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온갖 이적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도 이적을 행하여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 31:12~18에 기록된 표징에서 그들의 능력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되었으되"라는 생생한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것만이 그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교회증언 9권, 16).

7월 17일(수)

사단이 그리스도로 가장함(2)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후 11:14.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최후의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가 사단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만의 술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그릇 인도하기 위해 자기의 온갖 능력을 다할 것이다.

감히 우리 주를 대면하고 유혹하고 꺾으려하던 자요, 그리고 주를 그의 팔에 안고 성전 꼭대기로, 또한 심히 높은 산위로 데려갈 능력을 가졌던 그 자가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의 능력을 놀라울 정도로 발휘하리니 그들은 지혜에 있어서 구주보다는 훨씬 열등하며 사단의 간교와 능력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놀라운 방법으로 천성적으로 그의 지시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1, 52).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큰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엎드려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가장 악한 원수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원수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깨달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여 주라(성경주석 6권, 1105, 1106).

사단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그대가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만일 그대의 발이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그대는 자신의 기초를 떠나게 될 것이다(성경주석 7권, 911).

사단은 끝까지 싸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세상을 기만할 것이다. 그러나 폭풍이나 대풍도 그 발이 영원한 진리의 원칙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 그들은 거의 전세계적인 배도의 때에도 설 수 있을 것이다(성경주석 6권, 1106).

7월 18일(목)

사단의 이적들(1)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 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4.

원수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온 세상을 기만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고자 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96).

그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실제적인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성경에는 그가 단지 이적을 행하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단순한 사기 행위 이상의 것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단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는 여기서 기만을 그의 조력자로 초청하여 그가 실제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위조한다. 그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두번째 세상에 온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는 진정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시킬 것이다(교회증언 5권, 698).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큰 이적들을 행할 것이므로 사람들은 엎드려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경배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8.12.28).

우리의 바로 앞에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계 3:10)가 놓여 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히 세워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기만을 당하여 굴복당할 것이다. 사단은 인간의 자녀들을 지배하기 위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행하는데 그의 기만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유혹에 굴복할 때에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열심히 구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투쟁에 대비하기 위해 확실한 방벽을 찾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계 3:10)신다는 말씀은 구주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한 사람이라도 사단에 굴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곧 하늘로 부터 모든 천사를 보내사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60).

7월 19일(금)

사단의 이적들(2)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 13:13.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의 위기에 접근함에 따라 사단은 그들의 믿음을 거꾸러뜨리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계획에 대해 그의 천사들과 진지하게 협의한다. 그는 인기있는 교회들이 이미 그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꾀임을 받아 잠자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궤변과 거짓 기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계속 자기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도록 그의 사자들에게 지시한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72).

우리는 그가 마지막 때에 표적과 거짓 이적들로 역사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암흑의 천사가 아니라 빛의 천사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은혜의 시기가 마쳐질 때까지 기사들을 계속 행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7.11.17).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활동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위대한 의료선교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나타나고 있다.(의료봉사, 87, 88).

마귀의 거짓 기사들이 세상을 사로잡을 것이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는 이적들을 행할 것인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이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51).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인정하도록 유혹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적들이 행하여질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 기사들이 더욱 완전히 나타날 때, 우리에게 닥칠 시련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분명한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거짓 이야기들에 유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은 거짓 기사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치루게 될 싸움을 위하여 무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단의 능력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승리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교회증언 1권, 302).

7월 20일(안)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당함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2, 23.

우리는 기만을 당할 필요가 없다.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장면들이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이적들을 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을 병들게 했다가 갑자기 사단적인 능력을 그들로부터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명한 치료의 역사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53).

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동안 우리 백성들이 울면서 큰 번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롱하였고, 우리의 수가 적음을 비웃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 계획적인 말로 빈정대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듯한 태도를 취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자원을 끊어버려 매매하지 못하게 해 놓고, 우리의 참혹한 가난과 고통받는 상태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도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의 습관과 관례 그리고 법령에 양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와야 하였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백성이었지만 외관상으로는 아주 정반대였다(서신 6, 1884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이 행하여지는 가운데서 안전함을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이적이든지 행하여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 그들은 "기록되었으되"라는 생생한 말씀을 주장해야 한다(가려뽑은 기별 2권, 55).

7월 21일(일)

초자연적인 광경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눅 21:11.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더 큰 이교 세력의 외적 시위가 있을 것이다. 이교신들은 현저한 세력으로 세상의 도시에서 스스로를 나타낼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은 이미 성취되기 시작하였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17, 118).

구주께서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에 대해 하신 예언은 또 한번 성취될 것인데 그 두려운 황폐는 장차 닥칠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고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은 세상의 운명을 바라볼 수 있다(각 시대의 대쟁투, 36).

재난과 파멸을 예언하는 징조들과 이상한 일들이 나타났다. 깊은 밤 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다. 해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우려고 모여드는 군사들과 천사의 모습이 나타났다(각 시대의 대쟁투, 29).

지금 금요일 아침(1906년 8월 24일), 내가 잠에서 깨기 직전에 내 앞에는 아주 감명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나는 창문을 통해 한 무서운 화재를 볼 수 있었다. 큰 불덩어리들이 집들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들 불덩어리들로부터는 불의 화살들이 사방으로 날고 있었다. 타오르는 그 불은 끌 수가 없었으며 여러 곳이 소실되었다. 사람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복음전도, 29).

초자연적인 성격의 두려운 광경들이 이적을 행하는 악마들의 능력의 증거로서 머지않아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들은 세상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기만 가운데 동여매고 그들을 강권하여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서 사단과 연합하도록 할 것이다. 이들 대리자들에 의해 지도자들과 국민이 모두 기만을 당할 것이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가장하며 세상의 구속주께 속한 칭호와 경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놀라운 치료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성경의 증거와 모순되는 계시를 받고서도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공언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24).

7월 22일(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사 8:16.

산 의인들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1권, 66).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 이와 반대로 짐승의 표는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는 것이다(교회증언 8권, 117).

일요일을 지키는 일이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법령이 반포될 때까지는 짐승의 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나 아직 그 때는 이르지 않았다(성경주석 7권, 977).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시험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로마 카톨릭교회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누구든지 빛을 받고, 넷째 계명의 의무를 깨닫기 전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짜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선포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경고할 때, 거짓 것과 진정한 것 사이에는 선이 뚜렷하게 될 것이다. 그 때까지도 계속해서 네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복음전도, 234, 235).

만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일요일을 준수하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는 진리의 빛이 제시되었는데도 그대가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거절하고, 거짓 안식일을 고집한다면 그대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만일 그대가 성경에서 일요일은 보통 일하는 평일과 구별된 날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음을 알면서도 일요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는 법령에 순종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인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복음전도, 235).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잠시 동안에 그분의 인을 맞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인을 이마에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 나갈 때, 자기를 지나쳐 버리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감히 견딜 수 있겠는가?(리뷰 앤 헤럴드, 1889.5.28).

7월 23일(화)

인치는 일과 늦은 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 딤후 2:19.

사업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이 마쳐지기 전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1권, 11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남녀로서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능력을 간구하고, 능력을 기다리고, 능력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개인적인 신앙심을 계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높은 표준에 달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며 의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 우리는 교회가 높은 곳에서 능력을 받아 일하기에 적합하게 될 더욱 훌륭한 날을 확신있게 바라면서 늦은 비를 고대하고 있는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을 결코 새롭게 하거나 활기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적 생애에 영양을 공급하고 활기있게 하는 순결하고 생명을 주는 분위기가 아주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더 큰 열심이 요망된다. 세상에 전하라고 맡겨주신 엄숙한 기별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감명을 주는 열성으로 더욱 더 열렬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

그대는 그대의 모든 능력을 잃은 양들을 우리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에 사용하고 있는가? 경고를 받을 많은 사람들이 무지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자 전에 없던 기도를 드려라. 그대가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성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감동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시 67:1, 2)라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라(하늘에서, 338).

7월 24일(수)

남은 백성과 인치는 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화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슥 3:2.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번민 가운데 빠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사자들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간주하고, 배도한 교회들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 그의 최상권에 저항하고 있는 작은 무리들이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해 버릴 수 있다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충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지상의 악한 세력들을 선동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법령에 순종하도록 강요될 것이다. 하나님과 의무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협박과 고발을 당하며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유일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유일의 방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서 탄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남은 교회는 마음을 찢고 열렬한 믿음으로 대변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탄원할 것이다. …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범죄자인 그들을 멸망시킬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저들 자신을 악에 세력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저들의 죄를 버리고, 겸손과 회한으로 주님을 찾으며, 또한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고 있다.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는 위험을 눈물로써 경고하고 그들의 범죄를 인하여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스스로를 낮춘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슬픔을 조롱하고, 그들의 엄숙한 탄원을 비웃고, 그들이 그들의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굴욕은 그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능력과 품성의 고결을 다시 찾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

사단이 비난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리뷰 앤 헤럴드, 1908.1.9).

7월 25일(목)

모든 나라가 미국의 모본을 따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리어 절하니라" 단 3:7.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아무런 신성성도 없고, 평범하게 일하는 날인 주일 중 첫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가짜 안식일에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날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이 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반포될 것이다(성경주석 7권, 976).

종교 자유의 나라인 미국이 양심을 강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하는 일에 교황권과 연합할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미국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성경주석 6권, 18).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모본을 따를 것이다. 미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할지라도, 온 세상의 여러 곳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위기가 닥칠 것이다(성경주석 6권, 395).

나라들은 그들의 중심까지도 동요될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의의 표준, 곧 성품의 유일하고 확실한 시금석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원조를 끊어버릴 것이다. 또한 죄악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기 위한 국회의 법령과 국가의 법령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교황권 뿐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의 강압적인 세력을 느낄 것이다(가려뽑은 기별 2권, 380).

하나님의 백성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며 어떤 생각이나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그들을 조금도 거짓 경배에 양보하도록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많고 유한한 인간들의 명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음이 될지라도 진리는 순종될 것이다(선지자와 왕, 512, 513).

7월 26일(금)

종말의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찌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려 일어났나니 볼찌어다" 겔 7:5, 6.

세상이 당하게 될 종말은 두렵다. 세상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려 싸우기 위해 연합하면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 교회의 관습에 따를 것을 법령으로 선포할 것이다. 그 법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률상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이 사형을 받음이 합당하다는 선포를 받을 것이다. 반면 창조주의 안식일을 명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겠다고 위협한다.

그 쟁점이 자기 앞에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인간의 법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는 사람은 누구나 짐승의 표를 받으며 그는 자기가 하나님대신 복종하기로 선택한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다. …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데 이것은 안식일이 특별히 논쟁을 일으키는 진리의 요점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는 구별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국가가 넷째 계명에 반하여 제정한 법령에 따라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대한 충성을 공언하는 일이 되는 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창조주께 대한 충성의 증거가 된다. 한 무리는 세상의 세력들에게 굴복하는 표시에 순응함으로서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시를 선택함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지금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로만 간주되어 왔다. …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널리 세상을 들끓게 되면 오랫 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던 이 사건이 가까와 옴을 보게 되고 세째 천사의 기별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큰 결과를 거둘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04~606).

7월 27일(안)

국가적인 배도에 국가적인 파멸이 따름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사 24:5.

미국의 백성들은 은총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에 굴복하고, 교황권의 편을 들 때, 그들의 죄악은 충만해질 것이며 "국가적인 배도"는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 배도의 결과는 국가적인 파멸이 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93.5.2).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여 교황권의 제도를 강요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미국)는 의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 것이다. 개신교가 로마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 손을 뻗칠 때, 개신교가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해 심연을 넘을 때, 이 삼중 연합의 감화력 아래서 우리 나라가 개신교요 공화제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들을 포기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그 때에, 우리는 사단이 놀라운 일을 할 때가 왔고, 종말이 가까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교회 증언 5권, 451).

사단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새롭고도 더욱 고상한 종교 신앙의 조직을 제시한다고 공언하면서 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는 동시에 파괴자로서의 일을 한다. …

사단은 사람들의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질고를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듯이 보이면서도 질병과 재난을 일으켜 대도시들을 황폐케 할 것이다. …

그 때에 대 기만자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들 재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89, 590).

사람들이 더욱 더 하나님을 떠날 때 사단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지배하도록 허락된다. 그는 그들 가운데 파멸을 퍼붓는다. 땅과 바다에는 참화가 일어난다. 화재와 홍수로 재산과 인명이 파멸된다. 사단은 이 죄를 자기가 세운 우상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씌우기로 결심한다. 그의 대리자들은 재난의 원인으로써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지적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람들은 법령을 무시하면서 끝까지 버틴다. 그들은 일요일을 모독한다. 그들이 일요일 준수를 위한 법령에 복종하게 되면, 이런 무서운 심판이 그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1.7.16).

7월 28일(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세상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2:17.

우리 백성들은 이제까지 너무 미미하여 주목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로 간주되어 왔으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교계는 지금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특별히 눈에 띄게 만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교회증언 5권, 546).

제칠일 재림교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만든 일요일을 존중함으로 교황권에 경의를 표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은 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들끓게 될 것이다. 사단은 세상에서 그의 최상권이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세상에서 그들을 말살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7).

우리 백성이 진리에 대해 취하는 모든 견해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며,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사람들이 진리와 접촉할 것임으로 성경 말씀에 의해 비판적으로 심사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으나 언제나 반드시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주목의 대상으로 만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론들이 역사가들이나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 혹평을 당할 수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하며, 거만하고, 뻔뻔스럽고, 자부하는 태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까닭을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홀로 서서 믿음에 대해 답변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복음전도, 69).

우리는 모든 점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극도로 시련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 선조들에 의해 우리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무서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으며, 따로 구별된 독특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나오게 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 암흑의 세력들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의 포문을 열 것인데,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사람들과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쉽사리 그들의 희생이 될 것이다. 능력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확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천명을 쫓고, 또한 두 명이 만 명을 패주시킬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4.4.29).

7월 29일(월)

계시록 18장 천사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계 18:1.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올"것인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축복하시므로 남녀들과 어린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처음 품었던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능력으로 전파되는 동안 전적으로 각성할 것이다. 그 큰 외침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고귀하신 주님의 섭리에 의한 중재 아래 구원의 지식을 매우 풍성히 전파하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빛이 전달될 것이다. 세상은 구원의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열렬하고 적극적인 일군들에게 매우 풍성한 성공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도처에서 현대 진리의 빛이 번쩍일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4.10.13).

하나님께서 위기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 기간에 일어날 것이다. 진리는 분명하고 틀림없는 말로 선포될 것이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압도적인 성령의 지도 하에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복음은 순수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생수는 흘러감에 따라 깊고 넓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원근의 모든 분야, 곧 농업이나 주로 마음을 빼앗고 있는 보다 일반적인 상업활동에서 부름을 받아 경험있는 사람들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움으로 능력있게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태산 같은 어려움들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 사업은 계속 전진하여 마침내는 온 세상이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런 후에 종말이 이를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6.7.5).

7월 30일(화)

이른 비와 늦은 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욜 2:23.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에서 놀랍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 나타날 지라도 무지로 인하여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 공포감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을 긴장시키는 것만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나 이상에 따라 행하지 않으시므로 그들은 그 사업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 동안 그 사업에 종사하였는데도 왜 성령을 알지 못해야 하는가?" 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별의 경고와 탄원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끈덕지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의의 태양이신 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성령을 받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준비되지 않으면, 재능이나 오랜 경험을 가졌을지라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거룩한 사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 분께서는 그들을 분별력있는 사람들, 즉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다. 그들의 억세고 이기적인 성품의 특성이 세상의 빛되신 분에게서 비치는 빛에 드러날 것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5). 만일 그대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18.11.7).

이른 비에 나타난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받은 빛대로 생애하는 사람들만이 더욱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보임으로 매일 전진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507).

7월 31일(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롬 13:11, 12.

대쟁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바다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화의 소식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세상 끝을 선포한다. 우리 앞에 펼쳐질 큰 사건들을 기다릴 때 맥박이 급히 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오고 계시다. 우리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346).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왔음을 아는 이 지식이 힘을 잃으므로 우리가 부주의하고 태만하여 무력 상태 즉 현실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잠들게 되면, 비현실적인 세계에 처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낄 수 없게 된다. …

주변의 온통 빛나는 진리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원수의 마술에 걸려 있으며, 그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닥칠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종교적인 진리에 완전히 무감각한 것처럼 보인다.

깨어있는 청년들은 없는가? 밤이 오면 또한 아침도 올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깨우기 위하여 지칠줄 모르는 열성으로 일해야 한다. 그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오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생애와 품성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수 없는가? 우리와 영원 사이에서 신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더욱 더 깊은 감명을 주어야 한다. 지나가는 매일은 우리의 품성 완성의 사업을 위한 날을 하루 더 감한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서 무관심하게 귀중한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허비하고 있는 동안, 믿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들의 등을 손질하여 불을 밝히고 있는가?(우리의 높은 부르심, 346).

8월 1일(목)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

“지금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지 않아 오실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한낱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다.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교리는 현대 진리이며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오랫 동안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거룩한 천사들에게 호위되어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우리 자신을 위해 전적으로 행한다면 이 일은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존한 자들은 그 때에 마지막으로 영생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다. 그 때에는 사람들의 결점을 없애거나 거룩한 품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도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는 연단하시는 분께서 연단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거나 그들의 죄와 오점을 없애기 위해 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 일들은 모두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지금 행해져야 한다. 이 일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그 진리의 감화를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와 하늘 천사들의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도덕적인 적합성을 주기 위해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업장에 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채석장에서 떠낸 거친 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 그 감화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키고 우리의 본성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서 모든 불안전과 죄를 제거해 준다. 이리하여 우리는 영광 중의 왕을 뵙고 마침내는 영광의 나라의 순결한 자들과 하늘 천사들과 연합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 일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곳은 이 세상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생에 적합하게 되는 곳도 이 세상이다(교회증언 2권, 355, 356).

8월 2일(금)

도덕적인 품성의 본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 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고후 10:15.

그대는 사단이 매혹시키는 장소에 가까이 가지 말고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할 수 있으며 행복해야 하고 자제하는 습관을 배워야 한다. 심지어 그대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며 그대의 감정도 이성과 신앙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은 아무런 제재나 단련도 하지 않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행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이 그릇되면 감정도 그릇될 것이나, 조화된 생각과 감정은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 만일 그대가 그대의 기분대로 행동하고 그대의 생각이 의심과 불평의 길을 달리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될 것이다. …

친애하는 F 자매여, 그대는 병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이 이성과 판단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다. 그대에게는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주어서 혈액순환의 균형을 깨뜨리고 특정한 기관에 충혈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그대의 건강을 감정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다.

그대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대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고야 말 것이다. 그대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결정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 … 그대는 자신의 정교한 상상력이 이성을 지배하도록 했다. … 그대에게 감정을 지배할 능력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원수에게 굴복당하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대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여 맞서는 대신에 성화되고 부드러워져야 한다. …

인간은 슬픔과 걱정과 혼란의 세상에 처해 왔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을 받아 자신이 올바른 품성을 계발하고 불화와 혼란 가운데서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 또한 우리가 즐길 것도 많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계속적인 의무 아래 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느끼면서, 가장 작은 은총도 고맙게 여겨야 한다(교회증언 5권, 310, 311).

8월 3일(안)

영혼의 특성이라는 품성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욥 28:18.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고 있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된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하여 진보하게 된다. …

지능과 천재는 품성이 아니니 선한 품성의 정반대 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도 지능과 천재를 소유하고 있는 까닭이다. 명망이 곧 품성은 아닌 것이다. 참된 품성은 자신을 행위로 나타내는 영혼의 본질이다.

선한 품성은 금은보다 더 가치있는 자본이다. 품성은 공포나 실패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재물이 쓸어버림을 받는 날에 그것은 풍성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고결함과 확고함과 인내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계발하려고 힘써야 할 특성들이니 이는 이런 특성은 이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는 능력—선을 행하는데 강하게 하며 악을 대항하는데 강하게 하며 역경을 견디는데 강하게 하는 능력—으로 옷입혀 줄 것이기 때문이다.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렬하고 제어하지 아니한 열정을 품성의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사실은 격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위대성과 고결함은 저희를 복종하게 하는 감정의 능력으로써가 아니라 감정을 복종시킨 능력에 의하여 측정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악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격정을 억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이다.

만일 청년들이 의복과 행실에 세상 유행을 모방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만큼 아름다운 품성과 친절한 성질을 소유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면 오늘날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수백명이 적극적인 생활무대에 나서서 사회에 고상한 감화를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다(새자녀 지도법, 161, 162).

8월 4일(일)

우리의 조력자이시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19.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 조화된 능력으로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 하늘 궁정으로부터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아셨다. 인간에게 소망을 주고 완전한 파멸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조화된 당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인간이 있는 바로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춰 인성을 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심으로 그들이 당신의 이름 안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가장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 … 그들에게는 죄의 선고가 없었다. … 그들의 조물주가 그들의 교사였다. 그러나 그들은 교활한 원수의 세력과 유혹에 넘어졌다. 사단은 천년간 하나님의 정부를 거스려 일해 왔으므로 확고한 실습을 통하여 능력과 경험을 얻었다. 타락한 인류는 에덴에서 아담이 갖고 있던 장점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4천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었다. 사단의 유혹을 깨닫는 지혜와 저항하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져 마침내 사단이 지구상에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였다. 식욕과 정욕과, 세상을 사랑함과 뻔뻔스러운 죄는 각양 타락이 자라는 악의 큰 가지들이었다(가려뽑은 기별 1권, 279, 280).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곧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가납하심을 받을 것이다(시대의 소망, 331).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죄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영문 시조, 1902.7.23).

8월 5일(월)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자" 유 24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다.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고,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흡수되고,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되므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악의 벌거벗음이나 흉악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곧 당신 자신의 의의 옷을 보게 된다(믿음으로 살리라, 113).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아무리 강한 죄악의 특성이나 유혹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셨다(가려뽑은 기별 1권, 82).

아무리 강한 유혹을 받아도 범죄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못한다. 아무리 강한 압력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범죄는 우리 자신의 행위이다. 어떤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나 마귀의 세력이 아니다. 의지가 동의하고 마음이 굴복당하지 않으면 정욕이 이성을 누를 수도 없고, 불의가 의를 이길 수도 없다(영문 시조, 1913.4.15).

그대가 만약 임마누엘의 피묻은 깃발 아래서 그분의 사업을 충실하게 행한다면, 그대는 시험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대를 타락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그대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9).

우리는 한가지의 죗된 경향도 보존할 필요가 없다. … (엡 2:1~6)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때, 악에 대해 유전적이며 계발된 경향들이 성품으로부터 잘려 나가게 됨으로 우리는 선을 위한 산 능력이 된다. 항상 거룩하신 교사에게서 배우고 매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됨으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하게 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도 일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 때 우리는 하늘 처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다.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성경주석 7권, 943).

8월 6일(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함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엡 3:20.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다면, 그대는 가장 낙담되는 처지에서도 그대가 달할 수 있으리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높이와 넓이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완전한 성품을 얻으려면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그대는 세상과 접촉하는 동안 인간의 칭찬을 너무 열렬히 구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따라 생애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야 한다. …

겸손의 미덕을 개발하고 무력한 그대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라. … 세속의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혼란과 유혹의 한가운데서도 그대는 전적으로 기쁘게 영혼을 구별되게 지킬 수 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지워져 있는 책임들을 즐겨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대의 주께서는 그대의 최고의 애정을 바치고 생애의 가장 고상한 봉사를 하도록 거룩한 요구를 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대의 몸과 마음에 있는 능력을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대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져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들은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고, 사단의 간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다. 그들은 가장 부드러운 동정과 긍휼,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인데, 그것은 그들이 바야흐로 멸망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야망과 병적인 욕망,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이성에서 발붙일 곳을 잃어가고 있으며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는 모든 말이 가련하다.

그대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그대는 적극적이고 부지런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야 한다(교회증언 4권, 567, 568).

8월 7일(수)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함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모든 것을 아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안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영역 안에서 온전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희망에 넘치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상한 성품 즉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 성품을 소유할 때, 신앙의 생애와 믿음과 순결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모본이 된다(의료전도, 112, 113).

그러나 죄를 극복하기 위한 아무런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성품에 마술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지배함으로 원수가 어떤 함정을 고안하여 우리를 다시 사로 잡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할 수는 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 안에서 거룩해야 한다. 우리들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리들은 진리와 사랑과 거룩한 품성의 탁월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밀초로 인장을 찍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인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

우리는 매일 영적 매력 가운데서 자라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본을 모방하고자 하는 노력가운데서 종종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과 실수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어야 할 것이지만 낙담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더욱 열렬히 기도해야 하며 더욱 완전히 믿어야 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까지 자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끈기있게 노력해야 한다(가려뽑은 기별 1권, 336, 337).

8월 8일(목)

동기와 행위를 존중할것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2.

원칙과 정의와 정직은 언제나 보존되어야 한다. 정책적인 수단이 숨겨있는 곳에는 정직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둘은 결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는 바알의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동기와 행위를 존중하라고 요구하신다. … 정직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모든 행위에 정직을 나타낼 것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름답게 보인다.

사단은 각 곳에 참여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진정한 친구들을 산산이 흩어 놓기 일쑤였다. 언제나 남의 이야기를 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불화의 씨를 뿌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늘은 이들을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종들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노력의 성과 중 몇 가지에 대해 아첨이나 칭찬을 받는 때보다는 훨씬 덜 위험한 처지에 있다. 겉모양만의 친구의 칭찬은 견책보다 위험하다.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마다 자신의 가장 훌륭한 노력의 성과중에서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진정으로 고상한 품성은 원수들의 거짓 비난에 분개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과 밀접히 연합하도록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아무도 감히 다른 사람의 명성이나 지위를 얕잡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자기 중심의 성벽이다. …

아무에게 대해서도 얕잡아서 말하지 말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하게 여겨질 수 있다. 우리의 유일의 안전은 십자가 아래 겸손하게 앉아서 자신을 무력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능력이 지금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주의 깊고 성실하게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각 사람은 저마다의 자리와 특별한 일이 있으며 또한 자기의 일에서 이루어진 방법은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교회증언 4권, 607, 608).

8월 9일(금)

악습을 이김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딤전 5:22.

무엇이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순결을 이루는지를 아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성품에 순결이 결여되어 있을 때, 죄가 품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성품에는 취하게 하는 술잔과 같은 홀리는 힘이 있게 된다. 자제와 이성의 능력이 온 몸을 더럽히는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이런 죄악적인 행위들이 계속되면 두뇌는 약해지고 병들어 균형을 잃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와 그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된다. …

나쁜 습관들은 좋은 습관들보다 더욱 쉽사리 형성되며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는 더욱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청년들의 성품에 의와 진리의 영속적이고 순결하며 타락하지 않는 습관들을 주입하는 일보다도 그들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도덕적 및 신앙적인 성품에 관한 견해를 타락시키는 일이 훨씬 수월하다는 잘 알려진 사실이 설명해 주고 있다. 방종, 쾌락에 대한 사랑, 증오심, 자만심, 자존심, 시기, 질투 등은 모본이나 가르침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라날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서는 마음과 성품이 자연적인 경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요망된다. 천연계에 있어서도, 밭을 버려 두면 찔레나 가시가 덮일 것이기 때문에, 그 밭에서 귀중한 곡식이나 아름다운 꽃을 얻으려면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대 앞에 악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온 하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구속하리 만큼 귀중히 여기신 남녀들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인간처럼 그렇게 진보되고 세련되고 고결하게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인간은 계속적으로 지적성장을 할 수 있다. 진리의 빛이 마음에 비취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널리 퍼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돌아가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렇다면 인간이 저들의 자신을 저하시키는 정욕으로 인하여 무디어지고 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묘한 사람이겠는가! 인간은 자신이 어떠하며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상상할 수 없다(부흥과 그 너머, 42, 43).

8월 10일(안)

전인적 성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3, 24.

진리는 사람 전체, 곧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마음과 능력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의 생명력은 자신의 육욕적인 행위에 의해 소모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행위들이 정복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그를 정복해 버릴 것이다. 사상은 순결해야 한다. 남녀들이 육체를 다루는 방법이 생각과 마음의 활력과 순결에 전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참된 그리도인은 성화에 이르는 경험을 한다. 그의 양심에는 죄악의 점이 없고 영혼에는 타락의 얼룩이 없다.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은 제한하는 원칙들을 그의 생애에 적용시킨다. 진리의 빛은 그의 이해력을 밝힌다. 구속주께 대한 완전한 사랑의 불길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독소를 제거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되어, 순결하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의 용모는 하늘의 빛을 드러낸다. 그의 육체는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적절한 성전이 된다. 거룩함이 그의 성품을 꾸며 준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교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영혼, 곧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창조자로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전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우리의 구속주로서 그분께서는 권리 뿐 아니라 사랑, 곧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이 요구를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마다 인식해야 한다. …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애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기능을 발휘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품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다. 그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하신 친절과 동정과 사랑과 순결로 향기를 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몸과 마음을 성령께 굴복하면 할수록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향기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성경주석 7권, 909).

8월 11일(일)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룸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 119:34.

사람이 거듭날 때 마음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과도 일치된다. 이 강력한 변화가 죄인에게 생기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거절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화에 관한 그릇된 이론들이 현대의 종교운동에 있어서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들은 교리상으로 거짓되고 실제적인 결과에 있어서도 위험하다. 그 이론들이 일반적으로 너무나 환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이 점에 관해 가르치는 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 불가결하다는 요구를 배가(倍加))시키고 있다.

진정한 성화는 성경상의 교리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살전 5:23)기도하고 있다. 성경은, 성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기도하셨다. 또한 바울은 신자들에게 "성령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롬 15:16)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요 16:13)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율법에 표현된 의의 위대한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사본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형성되는 성품도 거룩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성품에 대한 완전한 모본이 되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들과 일치되는 품성을 이루어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상의 성화이다. 이 역사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부흥과 그 너머, 13, 14).

8월 12일(월)

거짓된 성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일 2:4, 5.

지금 종교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화는 성경상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이루는 스스로 높이는 정신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을 수반한다. 그런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화란 믿기만 하면 완전한 성결에 이를 수 있는 순간적인 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은 그대들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 축복을 받는 측에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동시에 그들의 계명들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의 표현인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에 일치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력이나 극기 혹은 세상의 어리석은 짓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안이한 신앙에 대한 갈망이 믿음, 곧 믿음만이라는 교리를 인기있는 교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약 2:14,20). …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위험한 교리를 반대한다.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참람된 일이다. 그 까닭은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하나라도 고의로 범하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하라. 알려진 죄를 범하는 일은 성령의 증거하시는 음성을 침묵시켜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다. …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요일 2:4,5)(부흥과 그 너머, 15~17).

8월 13일(화)

감명과 느낌과 약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 119:104.

훈계와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불안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판단을 버리고 경험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복종하면 자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서에 복종하고 그들의 집회에서 무모하고 무질서한 광신의 정신을 쫓아내려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은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감명이나 느낌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만일 사단이 의심을 받지 않는다면, 느낌이나 감명을 줄 것이다. 감명과 느낌은 안전한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을 모든 사람이 철저히 알아야 하며, 어떻게 그들의 공언을 돋보이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가 되어야 한다.

언젠가 베틀크릭 위생병원의 한 환자는 자신이 새로운 빛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심하게 앓았으며 머지않아 죽어야 했다. 그의 의견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열렬히 경청하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이론은 하나의 흠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병실에서 한 그의 능력있는 훈계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그 영감의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에게 주사한 몰핀이었다(부흥과 그 너머, 52~54).

소위 치료제라고 불리우는 많은 것에 포함된 독은 몸과 마음을 파멸시키는 습관과 욕망을 일으킨다. 특허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인기있는 많은 특효약,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 중 어떤 것들까지도 사회에 아주 심한 저주가 되는 음주의 습관, 아편의 습관, 몰핀의 습관에 기초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치료봉사, 127).

만일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감정에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가짜이다. 그 까닭은 그 축복을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성화되지 못한 감정과 환상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부흥과 그 너머, 55).

8월 14일(수)

북과 춤과 소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전 14:40.

그대가 묘사하였고 …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일들은 은혜의 시기가 마쳐지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갖가지 천박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떠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성적인 사람들의 감각은 너무나 혼란해졌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불리고 있다.

성령께서는 결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소란스런 소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것은 사단이 이 시대를 위한 순결하고, 진실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쓸모없이 만들기 위한 자기의 교묘한 술책을 감추기 위한 발명품이다. … 소란스런 소리들을 뒤섞어 놓고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른다. 그들은 이전에 성경의 원칙들에 관하여 알고 있던 바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런 예배를 장려해서는 안된다. 1844년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 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흥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능력의 역사를 받았다. …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한 남녀들이 나체의 상태로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거룩한 육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유혹의 세력을 초월하였다고 말하였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소란스런 시위를 다 벌였다. … 사단이 그 일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육욕주의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사업은 치욕을 당하였다. 진리 곧 거룩한 진리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무너져 버렸다. …

나는 이와 같은 광신적인 운동과 소란한 일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고 있는 사단의 정신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하였다.

우리는 사단의 책략에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예배할 때 흥분과 소란이 아니라 질서와 규칙이 있기를 원하신다(부흥과 그 너머, 50~52).

8월 15일(목)

자랑할 여지가 없음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사 6:5.

성경상의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모세처럼 거룩함의 두려운 위엄을 보았으며, 무한하신 분의 순결과 탁월한 완전하심에 비교하여 자기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었다. 그의 긴 생애는 주님께 대한 고상한 봉사로 이루어졌다. 그는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단 10:11)이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자기를 순결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죄인들과 동일시하였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 "(단 9:18, 15, 20).

욥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6)라고 부르짖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사 6:3,5)라고 부르짖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들은 후에 자기는 "모든 성도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후 12:2~4참조, 엡 3:8)라고 말하고 있다. 천사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자 같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다(계 1:17).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걸어 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있을 수 없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할 수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지도록 고민하게 한 것은 자기들의 죄였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겸손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약점과 사악함을 가장 분명히 분간하므로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부흥과 그 너머, 14, 15).

8월 16일(금)

매일 매일의 구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베드로의 타락은 순간적이 아니라 점진적이었다.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차츰 내리막 길을 걸어 마침내는 구주를 부인하게 하였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안전하다고 믿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히 개심했을지라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도록 가르쳐서는 결코 안된다. 모든 사람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때에라도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 시험을 참는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약 1:12).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첫 확신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는 경고를 받고 있다. 우리의 유일의 안전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이 타락하였다는 것과 그의 기능이 약화되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짐과 고통과 극기를 지셨으므로 자기들은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지시도록 허락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셨다. …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서 향상하기를 그쳐서는 결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품을 때, 경계와 기도 그리고 더욱 높은 표준으로 전진하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위한 동기가 없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부흥과 그 너머, 42, 43).

8월 17일(안)

개심의 의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이전의 본성, 곧 혈육으로 나고 육신에 속한 의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낡은 방법들, 유전적인 기질들, 이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물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성향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애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습관과 행위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관계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본래의 성품과 기질의 모든 결점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그들의 상태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상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성화시키고 다듬어 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

진정한 개심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유전적이거나 습관화된 경향들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을 가지고 재치와 기술을 다해서 짠 튼튼한 직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이 직물을 완전히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나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천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런 천들은 색이 바래진다. 그 색깔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것은 여름의 열기 아래서 희미해졌다가 없어져 버린다. 함부로 취급하면 그 천은 낡아져 버린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와 같다. 성품의 씨줄과 날줄이 시련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때 그 성품을 이루는 재료는 무가치한 것이다. 낡은 옷을 새 조각으로 깁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낡은 옷이 새 천으로 해질 때는 더욱 큰 구멍을 뚫어 놓기 때문이다. 깁는 일은 쓸모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낡은 옷을 아주 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획만이 안전한 계획이다. 그분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다. … 끼워 맞춘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성경주석 6권, 1101).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최고의 애정과 가장 고상한 뜻과 가장 충만한 봉사를 바치지 않을 것인가?(하늘에서, 350).

8월 18일(일)

성화는 안식일 준수자들을 위한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8~10.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제 칠일은 당신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사이의 표징, 곧 충성의 표징이 된다고 선언하셨다. …

제 칠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법관이 이 문제를 개조하도록 하시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판단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편리한 방법을 따라서 그들의 경향에 가장 적합한 한 날 즉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지 않은 한 날을 선택할 것을 아셨으므로 제 칠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십계명의 중심부에 두시고 순종의 규범을 삼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그분의 사업과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다. …

사람들이 신성한 증거가 전혀 없는 한 날을 높이고 그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공언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업과 율법에 결정적인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무시하고 거짓 안식일의 준수를 강요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위에 높이고 가짜를 진짜보다 더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 안식일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무시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부터 오는 성화는 그분의 계명들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선언하신다. 범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화는 가짜 성화이다. 하나님의 원수요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신앙 세계가 기만을 당한다. …

사람들은 많은 발명품들을 고안해 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신 한 날을 택하여 거룩한 권한을 입혔다. 그들은 그 날이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하였으나 그 날에 신성성의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한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제시함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영문 시조, 1898.3.31).

8월 19일(월)

경고의 음성을 발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6.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존중하고 그 날을 변호하고자 하는 데는 가장 고귀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 날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폐한 계명은 바로 이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더 존중해야 할 계명이다. 충성된 갈렙이 요구되는 때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때이다. 자랑하지 말고, 비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위치에서 굳게 서야 할 때는 바로 그 때이다. 불신의 마음을 가진 정탐꾼들이 갈렙을 죽이려고 서 있었다. 그는 거짓 보고를 가져온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돌들을 보았으나 그것이 그를 침묵시키지는 못했다. 그에게 기별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전해야 했다. 그와 같은 정신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시 119:126,127)라고 기록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갈 때, 믿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에 나타내는 경멸과 비례하여 더욱 더 강하게 자라난다. 진정한 안식일이 말과 글로 사람들 앞에 제시되어야 할 때는 지금이다. 넷째 계명과 그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무시와 경멸을 당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기록한 깃발을 펼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높일 때라고 생각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침묵으로라도 불법으로라도 비밀에 대한 일을 시인해서는 안된다. 그들로 하여금 경고의 음성을 발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도록 하라. 진리는 숨겨지거나 부인되거나 위장되지 않고 온전히 공언되고 대담하게 선포되어야 한다(가려뽑은 기별 2권, 369, 370).

8월 20일(화)

순결한 진리의 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겔 9:4.

다음과 같은 점에 깊이 주목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속에 이루어지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치는 것으로 묘사된 순결한 진리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사람들이다(성경주석 3권, 267).

자신의 영적 타락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한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채로 있게 될 것이다. …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든 이치를 이해하고 있으나 거기에 일치되게 행동하지 않았다.

우리의 성품에 점이나 흠이 있는 한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성품에 있는 결점들을 고치고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런 후에는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준비하는 큰 사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성품을 받고 있으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법령이 발하여지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성품은 영원히 순결하고 흠없이 남을 것이다.

지금은 준비할 때이다. 하나님의 인은 불순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마음을 품은 남자나 여자의 이마에도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 즉 그들은 하늘나라에 갈 후보자들이다(교회증언 5권, 211, 213~216).

8월 21일(수)

누가 인을 받는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 14:5.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과할 여권을 갖게 될 것이다. …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쳐질 것이다.

초에 도장의 흔적이 남듯이 영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의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칭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뜨뜻미지근하고 반신반의의 상태에 있는 그들은 불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의 인도 아래 대낮같이 밝은 말씀의 빛 가운데서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 가운데서 더듬는다. …

어린 양께서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지식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들이 될 것이다. …

우리는 어떤 인간도 모방해서는 안된다.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행동의 규범이 될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그분은 모범적인 인간이시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가 겪어야 할 경험의 척도가 된다. 그분의 성품은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이생의 혼란과 어려움을 떠나 그리스도를 주목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자.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안전한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영광의 소망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을 다하여 분투노력하자(성경주석 7권, 970).

8월 22일(목)

머지 않아 인치는 시기가 끝남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 9:4.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머지 않아 끝날 것이다. 지금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네 천사가 네 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때이다(초기문집, 58).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고 있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완수하였으며 자신들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혹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받았으며 산 증거가 소생하였다. 마지막 큰 경고가 각 곳에서 발하여 졌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상의 거민들을 격노케 하였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급히 이리 저리 다니는 것을 보았다. 먹그릇을 옆에 든 한 천사가 지구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의 일은 끝났으며 성도들을 헤아려 인치는 일을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때 나는 …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던져 버리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치켜 드시고 큰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초기문집, 279).

또한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성소에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은 채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요구되는 준비를 등한히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하여 "늦은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함을 보았는지!(초기문집, 71).

예수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울 것인데, 그 때에는 그들이 모든 죄가 도말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울 것이데, 그 때에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줄 대제사장이 성소에 이미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 내는 작업은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행해져야 한다(초기문집, 48).

8월 23일(금)

천사들은 하나님의 표를 알 수 있음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 7:2, 3.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나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전쟁을 치루기 위한 큰 준비를 하고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그 큰 날은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비록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려고 군대를 정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도록 천사들에게 발하여진 명령은 아직도 강력하다. …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는 사방의 바람이 붙잡혀 있다. 그 후 세상의 강국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정렬시킬 것이다. 우리는 얼마남지 않은 은혜의 시기를 얼마나 주의깊게 이용해야 하겠는가!(성경주석 7권, 968).

단정치 못한 생각에 바쳤던 마음은 변화되어야 한다. …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 되어야 한다. 지금은 육신적인 마음의 본성적인 경향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믿음으로 살리라, 336).

우리가 바로 환란의 때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모두 받을 것이다. 나는 그 후에 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일을 그친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나는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과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쳐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천사들이 볼 수 있는 표이다. 그 까닭은 파괴하는 천사가 이 구원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주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있는 갈바리의 십자가의 표시를 보아왔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진다. 그들은 혼인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충성한다(성경주석 7권, 968).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언행으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다(믿음으로 살리라, 336).

8월 24일(안)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겔 20:12.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 가기 위하여 애굽을 나왔을 때 안식일이 그들을 구별하는 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상에서 나올 때 그들을 구별하는 표가 된다.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며,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과 당신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만드셨다. 그날은 그분을 창조주이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지적해 준다. 그날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한 가지로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겔 20:12).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이다. 또한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의 표로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그들은 그분 안에 있는 자신들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 안식일은 창조사업을 구속사업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의 증거로서 지적한다. 그 날은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켜 주는 한편 구주를 통하여 회복된 평화를 말해 준다. 천연계에 있는 모든 만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18)는 구주의 초청을 되풀이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황금고리이다(믿음으로 살리라, 33).

8월 25일(일)

안식일의 중요성과 영광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사 58:14.

안식일에 우리는 즐겁고도 훌륭한 시간을 가졌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렸다. … 나는 계시를 받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 나는 또한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새롭게함과 늦은 비가 이를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는 말과 땅의 높은 곳에 오른다는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안식일을 더욱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평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들이 그 빛나는 돌쩌귀 위에서 활짝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기쁘고 즐거운 음성이 인간의 귀에 울렸던 어떤 음악보다 더 훌륭한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는 안식일의 모든 중요성과 영광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도성에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는 것과 하늘나라, 곧 즐거운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임을 보았다(서신 3, 1851년).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위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았다. 한 쪽 돌비에는 네 조목, 다른 쪽에 여섯 조목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돌비에 있는 네 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여섯 계명보다 유난히 더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히 빛났으며 영광의 기운이 그 주위에 가득하였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일 못박혔다면 다른 아홉개의 계명도 마찬가지로 못박혔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자유롭게 범할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별하는 표가 되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보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고대하는 성도들을 한데 묶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초기문집, 32, 33).

8월 26일(월)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겔 20:20.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 집 문 위에 피로서 표를 해 놓았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를 간직할 것이다. 히브리 백성이 파멸에서 보호를 받고자 거주하는 집 문 위에 표를 했던 것과 꼭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표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겔 20:12)고 말씀하신다(성경주석 7권, 968, 969).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창조와 구속을 통한 주님의 소유물이다. 각 영혼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사신 소유물이라는 뜻에서 하나님께 넘겨 드렸는가? 주님을 생애의 보배로 마음에 간직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나아갈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표를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출 31:12~17).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가치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귀중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훌륭한 진리의 대리자들이 될 수 있는 곳에 세우게 하실 것이다(성경주석 7권, 969).

8월 27일(화)

성소 문제에 대한 연구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 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단 8:14.

우리는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다니엘과 요한의 계시에 나타난 성소 문제를 밝히 깨닫게 되기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와 사업에 큰 빛을 던져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틀림없는 증거를 준다. 그것은, 정결해져야 했던 성소는 우리가 추측했던 세상이 아니며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천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한 말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의 마지막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줌으로 1844년의 실망을 설명해 준다.

2,300주야는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축하라는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발효되던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때를 기산점으로 삼으니 단 9:25~27의 설명에서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이 완전히 들어 맞았다. 70주, 곧 490년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해당될 것이었다. 이 기간이 끝날 때에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에 인을 쳤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주후 34년에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다. 2,300년의 첫째 부분인 490년이 그 때에 끝나고, 1,810년이 남게 된다. 주후 34년부터 1,810년이 지나면 1,844년이 된다. 천사는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말하였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정확했다. 우리가 지나온 큰 이정표들은 틀림없다. 비록 마귀의 무리들이 그것들을 기초부터 뽑아버리고자 애를 쓰고 그들이 성공을 해 왔다는 생각에서 승리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이와 같은 진리의 지주들은 사단과 그 천사들과 연합한 사람들의 온갖 노력에도 움직이지 않고 영원한 산처럼 확고히 서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므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믿음으로 살리라, 208).

8월 28일(수)

성소가 정결케 됨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3.

우리 구주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히 9:24)라고 기록하였다. …

18세기 동안 이 봉사사업은 성소의 첫째 칸에서 계속되었다. 회개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탄원한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가납을 얻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전형적인 봉사사업에서 연말이면 속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구속 사업을 마치시기 전에도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시고자 속죄하는 일을 하신다. 이것은 2300주야가 끝나자 시작된 봉사사업이다. 그 때 …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당신의 엄숙한 사업의 마지막 부분을 이행하시고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

단 8:14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나가시는 일과, 단 7:13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인자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 나가시는 일과,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주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나가시는 일은 모두가 동일한 사건에 관한 묘사이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결혼식에 나가는 일로도 묘사되어 있다.

성소의 정결은 … 조사사업 곧 심판 사업에 포함된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기 전에 행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에는 지위나 계급이나 재산이 어느 누구의 경우든지 추호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순결하고 고상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어떠하냐 함에 따라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믿음으로 살리라, 207).

8월 29일(목)

하늘 성소에서 얻는 교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22.

"인자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단 7:13). … 여기에 언급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은 그분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재자로서의 일을 마치실 때에 당신께 해당되는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 나아 오신다. 1,844년에 2,300주야가 끝날 때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일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오시는 일이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의 호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믿음으로 살리라, 209).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생한 생명수의 샘에서 마실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샘의 깨끗한 흐름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료해 줄 것이며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할 것이다. 아! 만일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볼 수 있다면, 그 영혼에게는 하늘의 빛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분께서 지상에서 교사가 되셨다.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께서는 엠마오로 여행하는 외롭고 낙심한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교사가 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펴시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새롭고 신성한 소망과 기쁨에 열중하게 하셨다.

지성소에서는 위대한 교육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들과 교통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에서 봉사사업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마땅히 따라 들어가야 하지만 그분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과 일치하도록 이 지상에서도 영혼을 깨끗케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서신 37, 1887년).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저들의 눈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 곳, 하늘 성소로 고정시켜야 한다(믿음으로 살리라, 209).

8월 30일(금)

산 사람들의 사건을 심판하심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3.

심판을 위해 정해진 때, 곧 1,844년의 2,300주야가 끝날 때에 죄를 조사하고 도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산 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계 20:12)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재판장께서는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고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기록하기 위하여 남아 있을 것이다.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악한 경향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는 진지한 싸움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다. 우리는 무더기로 구원받을 수 없다.한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특성들을 보충해 주지 못할 것이다. 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상에서 그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철저한 조사를 각자의 경우에 행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음이 나타나야 한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일은 오랫 동안 진행되어 왔다. 어느 때일지는 알 수 없지만 머지 않아 각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는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 어느때 보다도 지금 모든 영혼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막 13:33)는 구주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믿음으로 살리라, 211).

8월 31일(안)

조사 심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딤전 5:24.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것들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는 그들의 경우가 조사를 받게 될 심판후에 말살될 수 없다. … 조사심판이 마쳐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자 상벌을 가져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상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은 죽을 때에 행해지지 않는다.

전형적인 성소 봉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행한 다음 밖으로 나와서 회중을 축복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의 사업이 끝날 때, 기다리고 있는 백성을 영생으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가 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제사장이 성소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행할 때 그 죄를 아사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단에게 넘길 것이다. 아사셀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도록 한 모든 죄를 지고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에 천년 동안 감금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악인들을 멸망시킬 불 속에서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사는 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 반면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낙찰될 것이다.

회개하는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동안,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죄를 도말하고 정결케 하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믿음으로 살리라, 213).

9월 1일(일)

법정과 회의장에 섬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시 119:46.

우리는 마지막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를 일을 당하여 당황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늘의 세 크신 능력이 활동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손이 사업을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복음전도, 65).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회의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가 각자가 믿는 믿음의 이유를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8.12.18).

우리 백성이 진리에 관해 취하는 모든 견해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진리와 접촉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견해는 성경 말씀에 의해 엄격하게 헤아려지고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주목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싸움터로 몰아 넣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역사가들이나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의 진리에 관한 이론을 혹평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복음전도, 69).

주 예수께서는 그들이 적대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사단의 기만을 이론으로 이길 수 없던 자들은 추측컨대 학식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긍정적인 증언을 할 것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너무나 확신시키는 능력과 지혜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개심할 것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으로 개심할 것이다.

유식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 능력을 어떻게 무식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가? 그것은 무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수하고 분명한 진리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온 반면에 유식한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연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는 역사나 소위 고도의 과학이라는 것에 호소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강력한 증거를 모은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증언하는 진리는 너무나 순수하고 뚜렷하고 너무나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능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반박할 수 없다(원고 53, 1905년).

9월 2일(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함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 10:18.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불려 나가 증언을 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20명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역사상 큰 위기를 향하여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 허영심을 채우고 사소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바칠 시간이 없다. …

왕들과 통치자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그대와 적대되는 사람들의 보고를 통하여 그대들의 믿음과 성품은 그들 앞에 그릇 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고발을 한 사람들은 답변을 하기 위해 그들을 고소한 자들 앞에 나타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앞에 빛을 전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그대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원수들은 그대의 지혜를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가장 위대한 지적 능력에 도달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게을러서 진리의 광산을 깊이 파들어가지 못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에게 닥칠 위기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매 순간이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대가 깨달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그대는 준비되지 못할 수가 없다(리뷰 앤 헤럴드, 1892.4.26).

그대는 어딘가에 불려가 진리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왕들과 세상의 학식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진리에 관하여 피상적인 이해력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그들의 믿음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나는 거룩한 설교단에서 설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는지 모른다(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217).

9월 3일(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암 4:12.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성소에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은 상태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 환란의 때에 보호를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초기문집, 71).

그들의 옷은 더러움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뿌림으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부지런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없이하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425).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요구되는 준비를 등한시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하여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함을 보았는지!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초기문집, 71).

선지자들에 의하여 경고받기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에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진정한 형편보다 훨씬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리는 때를 당해서야 그들이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아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

나는 만일 그들이 모든 저지르기 쉬운 죄와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그리고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초기문집, 71).

9월 4일(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마 10:19.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앙을 인하여 시련을 받게 될 때 판에 박은 듯한 말을 제시하려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준비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한 진리를 마음에 쌓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먹고 살며 신앙을 강하게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시련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러 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바로 그 진리들을 생각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얻은 성경 지식을 그것이 필요하게 될 바로 그 때에 그들의 기억에서 번쩍 떠오르게 하여 주실 것이다(안식일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40, 41).

그대는 시련의 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 이제 그대의 발이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대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시련을 당할 때 비록 세상의 친구가 곁에 없을지라도 그대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때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대의 주변에는 온통 그대를 멸망시키고자 광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은 그대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굳게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게 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증거할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리뷰 앤 헤럴드, 1892.4.26).

청년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위기가 닥칠 때 능력의 원천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시련의 때에 서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평안한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산 경험을 얻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깊은 감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지금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곧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셔야 한다(리뷰 앤 헤럴드, 1892.5.3).

9월 5일(목)

오순절의 경험이 다시온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겔 34:26.

동방 나라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표상으로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비상한 방법으로 영적 은혜를 받을 것을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 그리고 세상의 추수가 끝날 때가 가까운 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를 특별히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사도행적, 54, 55).

복음의 큰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하지 아니한 큰 능력의 나타남으로 마치게 될 것인데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으로 분주히 내왕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다. 사단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오게도 하면서 거짓 기사들을 행할 것이다(계 13:13 참조). 이리하여 세상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파될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전파되어 왔다. 종자는 이미 뿌려졌으며 이제 그것은 성장하여 결실할 것이다. … 이제는 광명한 광선이 각처에 뻗어 들어가고 진리는 분명히 나타나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자기들을 결박한 줄을 끊을 것이다. 이제 혈연 관계, 교회 관계는 그들을 매기에 무력하게 되었다. 진리가 그밖의 모든 것보다 귀중한 것이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11, 612).

9월 6일(금)

아마겟돈 동맹의 전쟁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 17:14.

우리는 일곱째 대접을 붓는 사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한 역할을 한다.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영광으로 세상이 환하여 질 때 선악간의 종교적인 단체들은 잠에서 깰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성경주석 7권, 983).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네 강한 천사들은 이 세상의 강국들을 제지한다. 세상 나라들은 전쟁을 하고자 열중하나 천사들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이 제지하는 능력이 사라질 때 고통과 번민의 때가 올 것이다. 치명적인 전쟁 도구들이 발명될 것이다. 승객들을 실은 배들이 깊은 바다 속에 매장될 것이다. 진리의 정신을 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휘 하에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 대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제어될 것이다(성경주석 7권, 967).

각종 죄악이 갑자기 맹렬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세력을 악인들과 연합하게 된다. 그들은 가장 훌륭한 형태의 기만과 싸움에서 계속 싸워온 경험을 통하여 여러 세기 동안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고서는 마지막 큰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은 어느 한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므로 우리들 중 아무도 잠자는 자가 없어야 한다. 등에 기름을 채워 놓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며, 만군의 대장되시는 분께서 그 전쟁을 지휘하시기 위하여 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상의 거민들에게 나팔이 계속해서 울릴 것이고 대접이 연이어 부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들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성경주석 7권, 982).

9월 7일(안)

차례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살전 5:4.

나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 입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물러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에 진노를 부으실 것이다.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차례대로 일어날 것과 또 아직 미가엘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란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여 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으로 갈아 입으실 터인데 그 때에야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성소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것을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재앙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인데 이로 인해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울부짖게 될 것이다. 이 때가 야곱의 환란의 때였다. 그 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았다(초기문집, 36, 37).

구주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 나라가 세속적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구출되기를 바랐으므로 그들의 소망이 집중된 분께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다. …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명시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앞에도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은혜의 시기의 마침과 환란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는다(각 시대의 대쟁투, 594).

9월 8일(일)

잠깐 동안의 평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 때 땅위에는 대 환란이 이르겠고 열방들이 분노하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 때에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일곱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초기문집, 85, 86).

나는 세상의 거민들이 극도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싸자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사소한 어려움들을 제거해 버리게 되었다. 자존심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깊은 겸손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고통과 혼란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되찾게 되었으며, 성급하고 분별없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 분별있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주의력은 다른데로 쏠리게 되었다. 거기에는 잠깐 동안의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한번 내게는 지상의 거민들이 나타났는데, 모든 것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다툼과 전쟁과 유혈사태가 기근과 병과 함께 도처에서 맹위를 떨쳤다. 다른 나라들도 이 전쟁에 가담하여 혼란에 빠져 있었다. 전쟁으로 기근이 발생하였다. 기근과 유혈사태는 질병을 일으켰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였다(교회증언 1권, 268).

천사들은 지금 세상에 닥칠 운명이 경고되기까지는 투쟁의 바람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폭풍이 세상을 휩쓸기 위하여 몰려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그 때에는 필력으로 묘사할 수 없는 싸움의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

은혜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예기간을 주셨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모든 능력은 무지해서 멸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복음전도, 704).

9월 9일(월)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외침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렘 6:14.

법왕교도와 개신교도와 세속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 교회의 큰 운동이라 하며 오래 기대한 복천년의 전조라 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88, 589).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 철학의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털어버리고 종교지도자들이 오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것을 가르키며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할 때에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살전 5:3)할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104).

싯딤 골짜기의 주민들처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의 꿈을 꾸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의 경고가 있는 반면에 "침착하여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고 하는 다른 소리들이 들린다. 하늘이 죄인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은 "평안하다, 안전한다"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멸망당한 전날 밤에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들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공포와 경고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에 자비의 문은 악하고 부주의한 소돔의 거민들에게 영원히 닫혀졌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시를 당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할"(사 13:9)것이다. 세상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신속하고 만회할 수 없는 멸망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고에 주의한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그들의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167).

9월 10일(화)

하나님의 사업을 마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엄숙하고 신성한 경고의 기별은 가장 어려운 지방과 가장 죄많은 도시들과 큰 삼중 복음의 기별의 빛이 아직도 미치지 아니한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초청을 들어야 한다. 각 동리와 각 도시와 각 나라에 현대진리의 기별을 전파하되 외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할 것이다(복음사역자, 27).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의 기별은 진리가 세상을 에워쌀 때까지 모든 나라와 지역에 전파될 것이다. 인침을 받을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10)라고 외칠 남녀들이 각 나라에서 모여들 것이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532).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밝아질 것이다. 빛이 모든 땅과 백성에게 비칠 것이다. 그 빛은 빛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비칠 것이다. 샛별이 우리에게 떠올랐으니 우리는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비춰야 한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 왔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큰 진리들을 전파해야 한다. 머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결심할 것이다. 그런 후에 끝이 이를 것이다(교회증언 6권, 24).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진리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며 모든 대륙의 암흑을 밝히고 바다의 섬들에 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지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표어는 전진하라. 계속 전진하라는 것이어야 한다. 하늘의 천사들은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앞에 갈 것이다.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여 질 때까지는 지경 저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복음사역자, 470).

9월 11일(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중재하심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니라" 미 1:2, 3.

품성은 위기를 당하면 드러난다. …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에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영혼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게 될 것이다(실물교훈, 412).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행위를 기록하고 계신다. 이 세상 역사의 각 시대를 통하여 악한 일꾼들은 분노의 날을 거스려 악을 쌓아 오고 있다. 불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이를 때가 차면 그분의 관용은 그칠 것이다. 하늘 기록책에 쌓인 기록들이 범죄의 한계에 달하면 자비가 섞이지 않은 분노가 나타날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드러날 것이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일에 연합할 때 이와 같은 위기가 올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의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불탈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악인들과 연합한 사단의 오만을 꺾을 수 있지만 교회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충성되게 남은 자들은 교회를 위해 열렬한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가 극도에 달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교회증언 5권, 524).

진짜를 가짜로 바꾸는 일은 연극의 마지막 행동이다. 이렇게 바꾸는 일이 세계적인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인간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고 이 세상의 강국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도록 강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온 줄로 알라. 그분께서 위엄있게 일어나 세상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거민들의 불법을 벌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세상은 피를 드러내고 죽음을 더 이상 가리우지 않을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1.4.23).

9월 12일(목)

은혜의 시기가 마침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

조사심판 사업이 마칠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명이나 사망으로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조금 전에 마쳐진다(리뷰 앤 헤럴드, 1905.11.9).

조롱하는 자들은 천연계의 현상, 곧 변함없이 순환하는 계절, 일찍이 한 번도 비를 내려본 일이 없는 푸른 하늘, 밤에 내린 부드러운 이슬로 청청하게 푸르른 들을 가리키면서 "그는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의의 전도자를 광신자로 선고하고, 전보다 더욱 향락을 추구하며, 더욱 심한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그 예고된 사건이 닥치지 못하도록 방지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 그러나 그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 위에 내렸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9)고 하셨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338, 339).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밝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해하지 않는다. 사단은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 지혜롭게 될 모든 인상을 뺏어 환란의 때가 이르러도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각 시대의 대쟁투, 594).

9월 13일(금)

은혜의 시기가 갑자기 끝남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살전 5:1, 2.

의인들과 악인들은 지상에서 여전히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농사하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하늘 성소에서 선포된 변경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주 안에 가두시고 불경건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칠일 동안이나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부주의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고 박두한 심판의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각 사람의 운명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시간 곧 죄인들에 대한 자비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거두어질 때가 밤의 도적같이 소리없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905.11.9).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으로써만 일깨워질 치명적인 방심 상태로 신속히 빠져 들어 가고 있다(영문 시조, 1909.12.8).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두려운 재앙들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던 사람들은 바다에서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매일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자 이리 저리 달릴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 하나님의 목사들은 반역한 교회와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이다(원고 1, 1857년).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눅 19:42)라고 말씀하였을 때 여러 시대 동안 세상을 내려다 보신 그분의 시선이 우리의 시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의탁받은 하나님의 교회여, 지금은 아직 그대의 날이로다. 신뢰와 유예의 날이 끝나가고 있다. 태양은 신속히 저물고 있다. 해가 졌는데도 그대가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할 것인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눅 19:42)하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 내려야 할 것인가?(서신 58, 1887년).

9월 14일(안)

전에 없던 환난의 때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단 12:1.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는 때에는 지상의 죄많은 거민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언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완성하였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들 앞에 이르는 시련의 시기를 위하여 이미 준비를 마쳤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가 자기의 일을 마친 것을 보고 한다. 곧 세상에는 마지막 시련이 이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충성한 자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대언하기를 마치신다. 주께서는 손을 드시고 큰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 …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땅 위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의로운 자들은 이와 같은 두려운 시기에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에 대한 제지가 제거되면 사단은 마지막까지 완고한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였고 그분의 사랑을 경멸하였으며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들에 대한 유예의 한계를 지나쳐 버렸으며 완강히 거절된 성령께서는 마침내 떠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그들은 악한 자에 대하여 방비가 없다. 그렇게 되면 사단은 세상의 거민들을 최후에 대 환란에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정욕의 맹렬한 바람을 제지하기를 그칠 때 각종 쟁투가 일어날 것이다. 온 세상은 옛적 예루살렘이 당한 멸망보다 더 두려운 멸망에 휘말려 들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13, 614).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시련의 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때이다(초기문집, 58).

9월 15일(일)

사방의 바람이 놓임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 7:3.

천사들은 세상을 함께 연합시키고, 사단이 무수한 지지자들 때문에 최상권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손은 세상의 각 곳에 펴져 있으며 방심하지 않는 경계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성경주석 7권, 967).

요한은 네 천사에 의해 붙들려 있는 것으로 표현된 자연의 요소들, 곧 지진과 폭풍우와 정치적인 투쟁을 보고 있다. 이들 바람들은 하나님께서 놓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붙들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44).

지금은 모든 생활에 압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때이다. 통치자들과 정치가들, 신뢰할 만하고 권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든 부류의 생각하는 남녀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요소를 사로잡고 있는 긴장을 살펴보고, 어떤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일, 곧 세상을 바야흐로 엄청난 위기에 몰아 넣을 일이 일어날 찰라임을 깨닫고 있다. 폭풍우가 세상에 휘몰아 치려고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는 붓으로 묘사할 수 없는 투쟁의 장면이 전개될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도 우리에게 유예의 순간을 주셨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빌려 주신 모든 능력은 무지해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경고의 기별은 세상의 모든 지역에 울려 퍼져야 한다. …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은 이 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되었다(리뷰 앤 헤럴드, 1905.11.23).

9월 16일(월)

마지막 칠 재앙이 내리기 시작함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 16:1.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의 당신의 중재를 마치실 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부어질 것이다.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려 할 때에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로 구원되기 직전에 세상에 내릴, 그보다 더욱 두렵고 광범한 심판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다. 계시록의 기자는 그 두려운 형벌을 묘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입증할 것이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계 16:2~6).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형에 처하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피를 흘린 것과 마찬가지의 죄를 범함이 되는 것이다. …

그 다음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계 16:8, 9). …

이 재앙들은 일시에 온 세계에 임하는 것이 아닌데 만일 그러면 지상의 전 인류는 이로 말미암아 일시에 멸절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재앙들은 일찌기 인간에게 알려졌던 형벌 중에서 가장 두려운 형벌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심판에는 자비가 섞였다. 그리스도의 중재의 피가 죄인으로 하여금 그 범한 죄의 분량 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27~629).

하나님의 진노는 곧 내릴 것인데 그분께서 범죄자들을 벌하기 시작하실 때에는 마지막 때까지 유예의 시기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이 지나가 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김을 받을 것이다(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82).

9월 17일(화)

죽이라는 명령이 내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 13:15.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실 때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성령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난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때에 사단의 충동과 지시를 따라 법령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아주 짧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된 법령이다(교회증언 1권, 204).

나는 예수님의 사업이 성소에서 마쳐지고 나면서 마지막 칠 재앙이 이를 때까지 네 천사들이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 재앙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없앨 수만 있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발하여졌는데 그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울부짖었다. 이 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였다(초기문집, 282, 283).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그 주위를 바삐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성도들이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고 안식일을 포기하며 주일 중 첫 날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마음 대로 죽일 수 있음을 명하는 문서가 여러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에 뿌려지는 것을 보았다(초기문집, 282, 283).

비록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죽일 날자를 결정하여 놓았을지라도 그 원수들은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자보다도 속히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진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지키는 위대한 수호자들의 경계선을 깨뜨릴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에서 피난하다가 습격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려고 높이든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서 떨어진다. 그 밖의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각 시대의 대쟁투, 631).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의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30, 631).

9월 18일(수)

죽일 사람들로 지목받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에 3:13.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선지자와 왕, 605).

하나님의 율법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에게서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는 때 여러 나라에서는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나게 된다. 법령에 지정된 때가 가까와 올 때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종교단체를 근절하기로 계획하고 하루 밤 사이에 단번에 그들을 처부수어 이론과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없이하기로 결심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635).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무시하고 주일 중 첫 날을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여 여호와의 안식일을 짓밟고 교황권의 제도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천사들과 악인들은 그들을 에워싸고 미친듯이 기뻐 날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교회증언 1권, 353, 354).

이 환난의 때가 올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자비도 없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찍혀 있다.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집결된 세상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는 맹렬한 싸움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길이 없는 이 적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는다(교회증언 5권, 213).

나는 성도들이 큰 정신적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상의 악한 거민들로 둘러 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였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들을 악인들의 손에 멸망하도록 버리시지나 않았는가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고민의 때였다. 그들은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외관상으로 보아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악인들은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구해 주지 못하는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 생명을 구해 보아라"고 외치면서 기뻐 날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유의하지 않았다(초기문집, 283).

9월 19일(목)

환난의 때에 천사들이 보호함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사 26:20.

맹렬한 시련의 날에 그분(그리스도)께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이 숨게 될 밀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보호를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때 모두 한 곳에 있지 않게 된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 무리를 지어 있게 된다(역사적 고찰, 158).

나는 도시와 마을을 떠나 무리를 지어 서로 교제하면서 가장 고독한 곳들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으나 반면에 악인들은 굶주림과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초기문집, 282).

밤 동안에 아주 이상적인 장면이 내 앞을 지나갔다. 큰 혼란과 군대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님께서 보내신 한 사자가 내 앞에 서서 "그대의 가족들을 부르라. 내가 그들을 인도할 테니 나를 따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나를 어두운 통로로 인도하여 숲과 험준한 산을 지나서 "여기에서는 그대들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였다. 거기에는 이 피난처로 인도를 받아온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 하늘의 사자는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밤에 도적같이 환란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였다(원고 153, 1905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의 환란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들의 봉사로 보존될 것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보호가 없을 것이다. 그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명들 중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호할 수 없다(선지자와 왕, 513).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 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있게 일하실 것이다. … 환란 곧 개국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심할 때에도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부조와 선지자, 256).

9월 20일(금)

재앙이 내리는 동안의 악인들

"주 여호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암 8: 11, 12.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무섭도록 뚜렷하게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하는 외침을 들었다(초기문집, 281).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던 자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방황하며 급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땅에 기근이 이르렀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마디의 인정하는 말씀도 듣지 못할 것이다(영문 시조, 1883.2.15).

많은 악인들은 그들이 재앙의 결과로 고통을 당할 때 크게 분노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고민의 광경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을, 자매들은 형제들을 서로 가혹하게 책망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증오심을 품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개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잠케 하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쳤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이 때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한 사람들을 우리를 멸망시킬 광신자들이며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함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백성들 보다 열배나 심하였다(초기문집, 281, 282).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가 없이 내릴 때 악인들에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들을 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숨기시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의 처지자 참으로 부러운 것이 될 것이다(성경주석 3권, 1150).

9월 21일(안)

야곱의 환란의 때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게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렘 30:7.

나는 예수님의 성소 사업이 마쳐지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에 칠 재앙이 이를 것이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이 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였다(초기문집, 36, 37).

사단이 에서를 충동하여 그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나아가서 한 것과 같이 사단은 최후 환란의 때에도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박멸하려 할 것이다. 야곱을 고소한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여 마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가 그의 최상권에 저항하고 있다. 만일 그가 무리를 지상에서 일소할 수 있으면 그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음을 알고 그들의 죄악이 사하여진 것으로 추측하나 하늘 성소에서 그들의 조사가 결정되었음은 알지 못한다. 사단은 저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죄를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장하여 고하고 자기가 일찌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제거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사하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천사들은 멸망시키심은 심히 불공평한 일이라고 항의할 것이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자기 손에 내 주어 멸하게 하시기를 요구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인해 그들을 고소할 때 주님께서는 사단이 그들을 극도로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믿음과 확고함은 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는데 그것은 그들의 전 생애 가운데서 선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들의 신앙을 없이하여 그들이 그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돌아서기를 원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618, 619).

9월 22일(일)

환난의 때가 있어야 할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 46:1.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일 때에 그들의 당하는 고민은 진리로 인한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리어 그들이 범한 죄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지나 않은가 또는 그들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계 3:10)라 하신 허락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을 인하여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함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가 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에 욕을 돌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반역의 음모를 듣고 또한 현재에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에 그들의 심중에는 어떻게 이 큰 반역을 그치게 하고 악인의 사악한 행위를 정지하게 할까 하는 욕망의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은 반역의 활동을 막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 스스로는 그 도도한 악의 조류를 방지할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몹시 가책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그들이 힘을 다하여 전진하면서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언제나 그들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였더라면 그들을 엄습하는 사단의 세력이 좀더 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죄를 과거에 회개하였음을 강조하며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하신 구주의 약속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찢는다. 그들의 기도가 묵시로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심한 불안과 공포와 곤란으로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간구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하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온다(각 시대의 대쟁투, 619, 620).

환란의 때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이룰 가혹한 시련의 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과 그의 유혹들을 포기하도록 이끌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리뷰 앤 헤럴드, 1884.8.12).

9월 23일(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7.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와 할 때에도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의 심중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으로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은 그들의 신앙의 줄을 끊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의식하지마는 범한 바 죄악이 하나도 숨김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 마당에서 도말되어 다시는 생각나게 할 것이 없는 것이다. …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함이 없이 최후의 쟁투에 직면하는 자들은 그때에 절망 끝에 고민하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나 악한 자들은 그들의 슬퍼함을 보고 기뻐 날뛸 것이다…

야곱의 경험도 역시 속임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 죄에 빠진 바된 사람일지라도 참된 회개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에는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한다는 보증이 된다. 사단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경우에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사단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한 것이며 그의 속임수는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계시다. 그들에게 그 환란은 극히 격렬한 시련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하고 또한 부드러운 것이지마는 그러면서 그들을 연단하는 풀무불 속에 던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니 곧 이로써 그들의 모든 세속적인 것을 불살라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반영되게 하기 위함인 까닭이다.

우리의 목전에 있는 위난과 고뇌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체와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한다. 곧 격렬한 시험을 받을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었다. …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열성과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에는 그가 성공한 것처럼 또한 성공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20, 621).

9월 24일(화)

큰 환난의 때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 13:19.

전에 없던 환란의 때가 머지 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환란은 실제보다는 예상이 더 큰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가장 여실하게 그 환란을 표현하더라도 그 극심한 시련의 크기를 묘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귀하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사업을 행하고 계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 학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보다 안락하고 유쾌한 길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언제나 우리 앞에 마련해 놓고 계신다. 아무도 그들의 영혼에 가장 두려운 위기의 때가 아닌 지금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하늘에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고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외치는 광경은 참으로 두려운 광경이다. 사단의 분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수록 더해간다. 그리하여 기만하고 파괴하는 그의 일은 환란의 때가 되면 최고점에 달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그분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멸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들에 대한 유예의 기간을 넘겼다.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셨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대장의 자비에 맡기셨다. 사단은 자기의 지배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며, 세상의 거민들을 다스릴 것이며, 세상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란에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정욕의 맹렬한 바람을 놓아버리며, 투쟁의 모든 요소들이 풀려질 것이다. 온 세상은 옛적 예루살렘을 휩쓴 두려운 멸망에 휩쓸릴 것이다(예언의 신 4권, 440, 441).

환란 곧 개국이래로 없던 환란이 한창 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선지자와 왕, 513).

9월 25일(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만 행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 3: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와 올 때 사단의 활동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사단은 인간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할 것이므로 진리를 거절해 온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성경주석 5권, 1105, 1106).

사단의 분노는 그의 때가 짧아짐에 따라 증가하며 그가 기만하고 파괴하는 일은 환란의 때에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기만적인 큰 연극의 주역으로는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등장할 것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그 희망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는데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벌써 오신 것처럼 꾸밀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한 바와 같이 실로 당당한 광휘찬란한 분장을 하고 그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승리의 함성은 공중에 사무칠 것이다. 이 때에 백성들은 그 앞에 부복하여 그를 경배하는 동시에 그는 그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있는 음조로 일찌기 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의 어떤 것을 말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런 다음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보이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킬 것이라고 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제칠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은 빛과 진리로 그들에게 보낸 바 그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절함으로 자기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고 언명할 것이다. 이는 가장 격렬하고 압도적인 기만이다. 마술장이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들 처럼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에 속아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행 8:10)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속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거짓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바는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각 시대의 대쟁투, 623~625).

9월 26일(목)

은혜의 시기가 끝난후에는 순교자가 없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 91:15.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오직 박해를 당하고 곤란을 당할 것이요, 곤란을 견디고 식량의 결핍을 당할 지언정 죽게 버려두시는 바 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

그러나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보다 먼저 있은 모든 순교자들이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구에 그들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사 그들을 원수의 수중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때는 실로 무서운 고민의 시기이다. 그들은 주야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는다. …

각 시대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지상의 세력들이 그 공격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위기에 고정되었다. 마치 잡혀 정배 보낸바 된 자와 같이 그들은 주림과 학대로 죽음의 공포에 떨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앞에 홍해를 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사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말 3:17). 이 때를 당하여는 설혹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피가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뿌린 종자인 순교자들의 피와는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때의 그들의 충성은 다른 이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의인이 그 원수에게 희생이 되도록 버려두는 바 된다면 이는 암흑의 왕의 승리가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환란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시 27:5)라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사 26:20, 21)하셨다. 주의 임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구원은 실로 영광스러울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29, 630, 634).

9월 27일(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사 49:25.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는 때에는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박멸하려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나게 된다. 법령으로 공포된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종교 단체를 근절하기로 계획하고 하루 밤 사이에 단번에 그들을 쳐부수어 이론과 책망의 소리를 없이 하기로 결심한다.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은 옥중에 있고 혹은 산림이나 산중의 적막한 곳에 피해 있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데 각처에서는 무장한 무리들이 악한 천사들의 군대의 충동을 받아 살해할 준비를 분주히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실 때는 바로 이 위기일발의 시간인 것이다. …

승리와 조소와 저주와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의 무리가 막 성도들에게 달려 들려 할 때에 밤의 캄캄함보다도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에 뻗치어 마치 기도하는 무리를 두르는 것같이 된다. 그 노호하던 무리는 돌연히 멈칫한다.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는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무서운 예감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그 빛나는 영광을 피하기를 갈망한다. …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바라보라"는 명확하고 선율적인 음성을 듣고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돌릴 때에 언약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궁창을 덮은 어둡고 노한 구름이 찢어질 때에 그들은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쳐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보좌에 앉으신 광경을 보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35, 636).

온 세상이 어두움에 빠져 있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의 거처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최초의 빛을 발견할 것이다(선지자와 왕, 720).

9월 28일(안)

한 밤중의 구원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욥 34:20.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에서 구제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후 수단을 언제나 가지고 계신다.(교회증언 5권, 714).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은 한 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은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적들은 연속하여 일어난다. 의인들은 이것들을 볼 때에 그들의 구원의 표인줄을 깨닫고 엄숙한 기쁨을 느끼지마는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바라볼 것이다. 만상은 모두 그 진로를 거스르는 것 같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그친다. 검은 구름은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그러나 이렇게 암담한 광경가운데서 문득 장엄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한 줄기의 영광이 방사되며 거기서 "되었다"(계 16:17)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각 시대의 대쟁투, 636).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그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제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그들은 없어지지는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어둡고 무거운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충돌하였다.

대기층은 갈라져 물러 나갔다. 그 때 우리는 오리온좌의 열려진 구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나오는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초기문집, 41).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개국 이래로 없던 낙담과 환란 가운데 빠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늘의 구름들이 서로 충돌할 것이며 흑암이 있을 것이다. 그 때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나오고 구름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며 인자의 밝고 뚜렷한 징조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름의 의미를 안다(원고 81, 1886년).

과연 14만 4천은 승리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초기문집, 37).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때에 인생의 큰 싸움에서 실패한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54).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진노의 날은 그분의 교회에게는 최후의 구원의 날이다(선지자와 왕, 727).

9월 29일(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 16:17, 18.

우리는 일곱째 대접을 쏟은 사건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악의 세력은 싸우지 않고서는 그 쟁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성경주석 7권, 983).

이렇게 암담한 광경 가운데서 문득 장엄하고 형용할 수 없는 한 줄기의 영광이 방사되며 거기서 "되었다"(계 16:17) 하시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흔든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던"(계 16:17, 18)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다.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하는 영광은 번쩍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치른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떨어진다. 큰 폭풍우가 이르는 것같은 노호가 들린다. 바다는 격노하여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같은 태풍의 무서운 울음이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과 같이 아래 위로 요동하고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같다. 산맥들은 무너지고 사람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가 없어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된 많은 항구들이 노한 파도에 삼키운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계 16:19)된다. 한 덩어리가 백 근쯤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 파괴를 행한다(계 16:21).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던 도시들이 낮아진다.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세상의 위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바친 당당하고도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진다. 감옥의 담들이 이리 저리 파괴되어 신앙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36, 637).

9월 30일(월)

특별부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단 12:2.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때는 한 밤중이었다. 악인들이 성도들 주위에서 그들을 조롱할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환히 비추었고 달이 그 자리에 멈췄다. … 검은 먹장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쳤다. 그러나 영광이 머무는 한 밝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 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초기문집, 285).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그들의 감옥에서 부르심을 받아 …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대는 낙담 가운데서도 … 그분께서 평안을 주시고자 그대 곁에 계심을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바를 알고 있다. 나는 파도가 머리 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리 만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그 때 나의 구주께서 내게 참으로 귀중한 분이 되신다고 느꼈다. 나의 장남이 죽어 나의 곁을 떠났을 때 매우 심한 슬픔을 느꼈으나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오셨고, 그분의 평안을 마음 속으로 느꼈다. 나의 입술에는 위로의 잔이 있었다.

그리고 내 곁에서 36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 … 잠들었다. 우리는 함께 봉사사업에 수고해 왔었으나 그 용사의 두 손을 접어 고요한 무덤에 안장해야 하였다.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은 매우 큰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위로의 잔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은 내게 참으로 귀중한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곁에서 동행하셨다. … 그분께서는 또한 그대의 곁에도 동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친구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사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는 이전의 주름살들은 모두 없어질 것이고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이들 친한 친구들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서 나올 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인바, 이는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라는 우리 앞에 제시된 복된 소식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으려는가?(하늘에서, 353).

◇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드린 희생과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제사장 직분과 봉사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대제사장의 참 성소의 봉사로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 허물을 마치고 죄를 그치고 죄악을 속량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완전히 믿어야 한다.

영원한 의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오늘은 의를 행하고 내일은 죄를 짓고 다시 의를 행하고 다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의가 아니다. 영원한 의는 믿고 자백한 사람의 생애에 한번 들어와서 영원히 머무르는 의이며 이런 사람은 모든 죄와 죄짓는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이 영원한 의를 더욱 받는 생애를 산다. 이것만이 영원한 의이며 죄에서 영원히 구속받는 것이다. …

주님이 오시고 만물이 회복될 때가 참으로 문앞에 다가왔다. 예수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을 자기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에는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며 그의 모든 성도에게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반사되는 것을 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기 전에 그의 백성은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엡 4:7, 8, 11~13). 이런 완전한 상태, 곧 예수의 완전한 형상이 모든 신자에게 꼴지어진 상태 -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이니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을 때에 이런 완성에 이른다.

지금은 예수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이 바로 문앞에 다가온 때이다. 주님의 오심과 만물의 회복에 앞서 성도들의 마지막 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증거로 볼 때에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을 때 - 늦은비의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할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애에서 모든 허물을 마치는 것이며 우리의 품성에서 모든 죄를 끝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우리안에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죄의 도말이 늦은비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에 앞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약속된 성령을 받으며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갈 3:13, 14). 그러므로 전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없이 함을 받고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늦은비의 새롭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천국 복음이 주는 기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권세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될 것이다." -A.T. 존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히브리서 연구), 제16장 새롭게 하는 때. ◇

꿈에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

여러분은 행복한 꿈을 꾸고 일어난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 꿈이 너무 좋아서 다시 잠을 청해 조금 더 꿈을 꾸고 싶었겠죠?

솔로몬은 왕이 된지 얼마 안 되어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요청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은 방에 가득 찰 만큼의 장난감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새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찬 냉장고를 원하겠어요?

솔로몬왕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주께서는 저의 아버지께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저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저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여 어떻게 그들을 잘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때 겨우 스무 살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는 생각에 빠른 정신과, 크고 사랑이 많은 마음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을 갖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수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다. 네가 명예나 네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원하지 않고 지혜를 원했으니 내가 네게 그것을 주노라. 네 전이나 네 후의 모든 왕들보다 네가 더 지혜로우리라. 내가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네게 주노라. 만일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계명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장수도 주리라."

솔로몬이 꿈에서 깨었을 때, 그는 꿈 속에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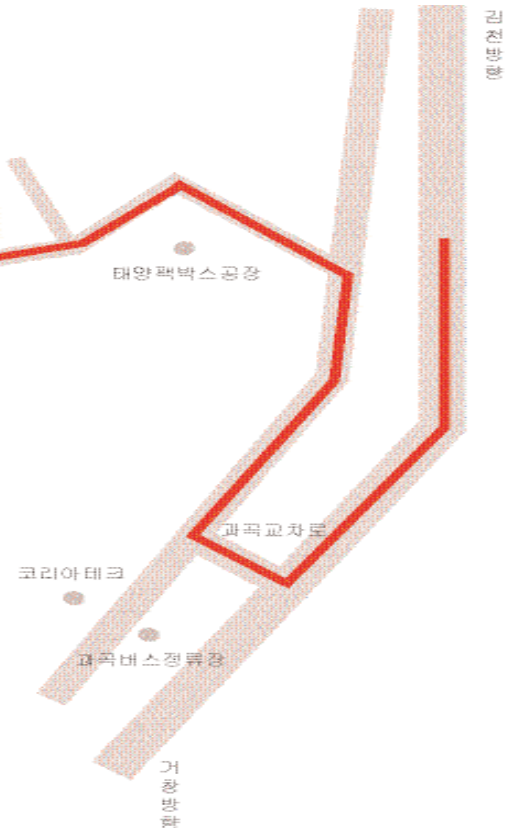
그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답니다. ◇

2019년 여름 장막 집회

주제 :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 17 : 14)

일시 : 2019년 8월 6일(화) ~ 8월 11일(일)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소리 외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온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의의 기별자들의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 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두 오셔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DARM 김천교회

전화 054. 435. 1843.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

<버스 이용시>

김천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지례 방향 버스 탑승 후 약 20분후 과곡 정류장에서 하차

<승용차 이용시>

김천IC에서 거창 지례방향 3번 국도로 20분간 운행한 후 과곡 교차로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약 200m전방에 표지판 보임